

# 국어 연결어미 절의 통사론\*\*

— 핵계층 이론적 분석과 프롤로그 구현 —

양 정 석\*

## 《 차 례 》

1. 서론
2. 앞선 연구 검토
3. 연결어미 절들의 구조적 차이
4. 명시어 구조와 부가어 구조의 통사적 증거 검토
5. 결론

### <요약문>

국어 연결어미 절들의 문장 구조에서의 지위를 Chomsky(1986)의 핵계층 이론을 주요 기반으로 전면적으로 고찰하여, 6가지의 통사적 부류로 나누고, 각각의 핵계층 구조를 기술하였다. 국어의 연결어미 절들은 핵계층 구조상의 4 가지 부가어(V'에 부가되는 부가어, VP의 부가어, I'의 부가어, IP의 부가어)로 설정되는 외에, 연결어미를 머리성분으로 하는 구(CP)에서 C'를 이루면서 그 오른쪽에 명시어를 취하기도 한다. 부가어로 설정되는 절 중 앞의 세 가지는 후행절

---

\* 연세대학교 문리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KRF-2004-002-A00055.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의 예리한 지적으로 주제에 관해 더 깊이 검토할 수 있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의 주어 또는 목적어를 서술하는 이차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보조적 연결어미나 ‘-으려고’, ‘-는다고’에 이끌리는 절은 보충어이다.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대등’/‘종속’의 구분은 엄격한 통사적 구분이 될 수 없고, 대등접속문은 부가어 구조의 일부로 편입된다. 둘째, 연결어미가 선택제약의 주체가 되어 후행절을 제약한다는 관점에서 기술되어야 할 연결어미 절의 한 부류를 명시어 구조로 기술하였다. 셋째, 연결어미 절 중에서 이차 서술어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절들은 공범주 연산자(Oi)와 그 흔적(ii)을 포함하는 구조로 기술되며, 이로 말미암아 후행절의 주어 또는 목적어와 통사적 주술관계를 형성한다. 넷째, 접속문 구조에서의 시간 선어말어미의 역할을 논의하는 종래의 연구는 대부분 굴절 범주로서의 시제 체계의 존재를 가정하는 입장에서 행해졌으나, 무시제 가설에서의 시간 관계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접속문의 시간 선어말어미들을 재해석하였다. 다섯째, 핵계층 구조로의 분석이 논리성과 실행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을 논리 프로그래밍 언어인 프롤로그를 통하여 검증하여 보았다.

주제어 : 핵계층 이론, 명시어 구조, 부가어 구조, 보충어 구조, 이차 서술어, 서술화 이론, 프롤로그 구현, 구문분석기

## 1. 서론

이 글에서 ‘연결어미 절’이란 연결어미에 이끌리는 절을 지칭한다. 이 연결어미 절을 선행절로 가지며 뒤의 후행절을 포함하는 전체 문장을 지칭할 때는 ‘연결어미 문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최현배(1937) 이래로 전통문법적 연구에서 연결어미의 문법 내의 위상은 단어 내부의 요소로서, 굴절접미사라는 것이다. 생성문법적 연구가 본격화된 이후로는 연결어미가 단어 내의 요소가 아니고, 문장의 머리성분(head: 핵어)이 되는

통사적 단위라는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연구는 Chomsky(1986)의 핵계층 이론(X-bar theory)의 기본 취지에 따라 국어의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의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내부 구조에서 연결어미는 절의 머리성분이 되는 요소로서, 그 통사 범주는 보문소(complementizer: C)이며,<sup>1)</sup>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 즉 연결어미 절은 보문소를 머리성분으로 가지는 보문소구이다. 그 외부 구조에서는, 국어의 연결어미 절은 핵계층 이론상의 세 가지 구조, 즉 보충어 구조와 부가어 구조와 명시어 구조로 분석된다.<sup>2)</sup>

보충어 구조를 이루는 연결어미 절의 대표적인 예는 종전에 ‘보조동사 구문’이라 불리던 구문이다. 부가어 구조를 이루는 연결어미 절은 다시 V’의 부가어, VP의 부가어, I’의 부가어, IP의 부가어로 나누어진다. 이 중 VP의 부가어, I’의 부가어 및 V’의 부가어는 주어 또는 목적어를 서술화(predication) 원리상의 주어(임자: host)로 취하는 이차 서술어(secondary predicate)가 될 수 있다. ‘-고, -으며’ 등의 연결어미에 의해 형성되는, ‘대등접속문’으로 알려진 문장이 IP의 부가어 구조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 일부 연결어미 문장이 명시어 구조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논점이다.

1) 통사 범주로서의 보문소에는 종결어미와 전성어미들도 아울러 포함된다. 구의 머리성분으로서의 보문소 위치에는 단일한 보문소 단위뿐만이 아니라, ‘-는다고’와 같은 두 보문소의 결합과, ‘-느니보다’와 같은 ‘보문소+명사+후치사’의 결합, 나아가 ‘잡-았-으며’와 같은 ‘동사+굴절소+보문소’의 결합도 실현될 수 있다. 양정석(2005) 참조.

2) ‘보충어 구조’, ‘부가어 구조’, ‘명시어 구조’는 각각 보충어와 부가어와 명시어를 포함한 연결어미 문장의 구조를 지칭한다. 보충어 구조와 부가어 구조는 연결어미 절이 각각 보충어, 부가어가 되는 구조인 반면, 명시어 구조는 연결어미가 선행절을 보충어로 취하여 C’를 이루고 뒤따르는 후행절(CP 또는 IP)을 명시어로 취하는 구조이다.

접속문을 명시어 구조로 해석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Munn(1993)에서 볼 수 있다. 양정석(1996)에서는 국어의 ‘NP-와 NP(-와)’ 구조를 명시어 구조로 분석한 바 있고, 양정석(2005)에서는 국어의 일부 연결어미 문장에 대해서 명시어 구조로의 분석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김지홍(1998)에서는 대등접속 구조(그의 ‘다항 접속’)에 대한 명시어 구조로의 분석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몇 가지 이론 내적인 근거를 들어 부정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일부 연결어미 문장에 대한 명시어 구조 분석을 정당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의 주요 연결어미 40개를 대상으로, 국어의 접속문 구조에 관한 이제까지의 통사론적 연구에서 주어진 통사적 검증 기제들을 평가·적용하려고 한다. 그 기본적 착안점은 국어의 연결어미들이 구의 머리성분으로서 그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를 결정하는 궁극의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다. 또한, 핵계층 이론에 입각한 연결어미들의 기능 분석은 이들을 가지는 연결어미 문장에 대한 프롤로그 구문분석기의 구현을 통하여 그 논리성과 효율성이 검증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것이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다.

이 연구가 Chomsky(1986)의 핵계층 이론의 기본 취지를 따르기는 하지만, 본론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처리 방안들은 3원적 병렬 체계, 개념의미론의 기본 관점과 구문규칙이라는 장치를 가지는 전반적인 문법 체계에서 그 구 구조 이론을 재해석한 것이다.<sup>3)</sup> 특히, 3원적 병렬 체계를 이루는 한 표상 층위인 통사구조는 심층구조/표면구조 또는 D-구조/S-구조/논리형태 등의 복수의 표상 층위로 상정되지 않고, 표면의 어순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단일한 구조 표상으로 상정된다.

(1) 단일한 통사구조 가정:

통사구조는 Chomsky(1986)의 S-구조에 상응하는 단일한 통사구조로 상정된다.

(2) 핵계층 도식:

가.  $X \rightarrow Y X$  ('머리성분(핵어) 부가': Y는 머리성분 범주인 부가어)

나.  $X' \rightarrow YP X$  (YP는 보충어)

다.  $X' \rightarrow YP X'$  (YP는 최대투사인 부가어)

라.  $X'' \rightarrow YP X'$  (YP는 명사어)

마.  $X'' \rightarrow YP X''$  (YP는 최대투사인 부가어)

(3) 국어에서의 보충어 선택에 관한 정리:

가. 보문소(C)는 I'와 C''를 그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sup>4)</sup>

3) 이를 양정석(2005)에서는 '대응규칙의 문법'이라고 지칭하였다. '3원적 병렬 체계'는 언어 표현이 독립된 통사구조 층위, 의미구조 층위, 음운론적 구조 층위를 가지며, 이들이 한 층위로부터 다른 층위로 도출, 해석되는 것이 아닌, 병렬적 관계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Jackendoff(1997, 2002)에서 전개된 관점을 따른 것이다.

4) 양정석(2002가: 287, 2005: 248)에서는 C가 I'만을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에 덧붙여 C''도 그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자 한다.

- 나. 굴절소(I)는 V''만을 그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
- 다. 동사(V)는 D''나 P'', C'', Adv''를 그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N'', I''는 제외된다).
- 라. 명사(N)은 N'', D'', C'', P''를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Adv'', I''는 제외된다).
- 마. 보조사(D)는 N'', C'', P''를 그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
- 바. 후치사(P)는 N'', C''를 그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
- 사. 부사(Adv)는 D'', P'', C''를 그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
- (4) 국어에서의 명시어 선택에 관한 정리:
  - 가. 굴절소구(IP)는 명시어를 반드시 가지며, 왼쪽 또는 오른쪽 명시어로 DP를 취한다.
  - 나. 동사구(VP)는 왼쪽 또는 오른쪽 명시어로 DP를 취할 수 있다.
  - 다. 보문소구(CP)는 왼쪽 또는 오른쪽 명시어로 DP를, 오른쪽 명시어로 CP, IP를 취할 수 있다.<sup>5)</sup>
  - 라. 후치사구(PP)는 오른쪽 명시어로 DP와 PP를 취할 수 있다.

(1)의 가정은 Chomsky(1986)의 이론 체계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사구조는 도출적 이동을 가정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동한 범주의 흔적이 표시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Chomsky(1986)의 원리 체계에 따라 생성되고 해석된다. (2)에서 주목할 부분은 머리성분 X와 중간범주 X'에도 부가어가 부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부가어는 각각 머리성분과 최대투사의 수준으로 한정된다. 이 5개의 핵계층 도식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통사구조도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것이 '구조 보존 원리'이다)이 이 연구의 기본 전제임을 유의해야 한다. (1), (2)의 원리에 따라 국어에서 (3)과 같은 정리가 도출된다. 우리는 국어의 연결어미 문장도 이러한 원리를 따르는 일부의 사례일 뿐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구 구조를 이루는 성분들의 어순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정은, '머리성분-뒤' 매개변인 외에는 어순에 관한 어떠한 보편적 제약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충어는 머리성분의 왼쪽에 위치하되, 명

5) 양정석(2002가, 2005)에서는 CP의 오른쪽 명시어로 CP만을 언급하였으나, IP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3.2절에서 후술한다.

시어와 부가어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위치에도 설 수 있다. (2)의 도식들은 명시어와 부가어가 왼쪽에 위치된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그 어순에 관한 가정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의 보충어들은 ‘머리성분-뒤’ 매개변인에 따라 머리성분의 왼쪽 위치로 그 어순이 고정된다. 그러나 명시어들 중 오른쪽 명시어는 (4다, 라)와 같은 국어 내적인 규정에 의해 그 순서가 고정되는 것으로 본다.

연결어미 절들의 구조적 위치에 관한 해석에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서술화 원리이다. 여기에서도 어순은 가정되지 않는다. 계층구조에 입각하여 해석되는 ‘관할’ 및 ‘최대통어’와 같은 관계만이 사용될 뿐이다.<sup>6)</sup>

(5) 서술화 원리:

가. 잠재적 서술어인 XP는 통사구조에서 상호 최대통어하는 논항과 연계되어야 한다.

나. 연계가 확인된 두 구는 위첨자 지표(‘서술화 지표’) ‘1’을 부여받는다.

(6) 잠재적 서술어의 요건:<sup>7)</sup>

가. 국어에서 V, Adv, P는 자질 [+pred]를 가지며, 이들 머리성분의 최대투사는 잠재적 서술어이다.

나. CP는 [-pred] 자질을 갖지 않는 경우 잠재적 서술어가 될 수 있다. CP의 명시어가 공범주 연산자(O) 또는 공범주 대명사 PRO일 경우에는 잠재적 서술어가 된다.<sup>8)</sup>

---

6) 관할(dominate)과 최대통어(maximal command)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관할의 개념을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은 May(1985)로부터 비롯되며, Chomsky(1986)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a. 관할: 범주 A의 모든 부분(segment)이 B를 관할한다는 뜻으로 A가 B를 관할한다고 한다.

b. 최대통어: A가 B를 최대통어한다는 것은 A를 관할하는 모든 최대투사 범주가 동시에 B를 관할하며, A는 B를 관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7) 양정석(2005: 258)에서는 IP가 명시어로 PRO나 pro를 가지는 경우도 잠재적 서술어가 된다고 기술하였으나, 이는 영어와 같은 언어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상정한 것으로, 국어에서는 그 용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

8) 이 조항은 양정석(2002가, 나, 2005: 258)에서의 규정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특히 두 번째 문장은 새로 첨가한 것이다. ‘-음’, ‘-기’ 등의 명사형어미는 [-pred]

다. NP가 [+pred] 자질을 가질 경우, 이를 보충어로 취하는 상위 구 DP는 잠재적 서술어가 된다.

서술화 원리는 서술어가 통사구조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논항, 즉 임자(host)를 취하여 주술관계를 만족시킬 것을 규정하는 원리이다. 서술화 원리는 기본적으로 서술어인 구 자체를 허가하는 원리이다. 이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표현은 부적격한 표현이 된다. (5)의 원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잠재적 서술어’가 무엇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6). 잠재적 서술어는 ‘서술어’ 개념을 통사적 개념으로 정의하기 위한 고안이다.<sup>9)</sup>

명시어와 부가어가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쪽으로든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국어의 이른바 자유 어순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자유 어순’의 근거가 되는 또 다른 가정은 (1)의 ‘단일한 통사구조’에 입각한, ‘이동 변형’의 관계이다. 여기에는 최대투사인 구와 그 흔적 사이의 이동 변형 관계와, 머리성분과 그 흔적 사이의 이동 변형 관계, 두 가지가 있다. (1)-(6)의 조건들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떠한 통사적 성분도 선행사가 되어 그 흔적과 이동 변형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결어미 절의 구조적 위치가 그 기본적 위치로 설정된 것과 다른 경우, 이 연결어미 절은 그 흔적과 이동 변형 관계를 형성한다고 간주할 것이다.

이동 변형 관계에 전제되는 개념으로서의 흔적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공범주들이 국어 문장의 통사구조 기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문에서의 연결어미 절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리를 제시해 두기로 한다.<sup>10)</sup>

---

를 가지는 보문소이며, 이 외의 보문소 중에서 그 명시어 위치에 O나 PRO를 가지는 경우 이 조항이 반드시 적용되어 이차 서술어로 해석되어야 한다. O나 PRO를 갖지 않은 보문소구가 이차 서술어 아닌 수식어로 해석되는 것도 가능하다. 양정석(2005: 264)에서는 a와 같은 ‘수식어 허가 원리’를 상정하였다.

a. [+pred] 자질을 가진 XP는 서술화 원리에 의해 허가되거나, 부가어로서 허가되어야 한다.

9) 주어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관해서 Williams(1980, 1983a,b)의 의미역에 기반한 견해와 Rothstein(1983, 2001)의 통사적 견해가 있는데, 이 연구는 후자를 따르는 것이다.

(7) 공범주에 관한 정리

- 가. 공범주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한 어느 위치에도 나타날 수 있으나, 문법의 독립적인 원리/제약에 의해 그 분포가 제한된다.
- 나. 국어에서 흔적(t)은 최대투사인 구의 경우와, 머리성분으로서의 동사(V), 굴절소(I)인 경우의 두 종류가 있다.
- 다. PRO는 지배 받지 않는 위치에만 나타나는 공범주 대명사이다.
- 라. pro는 지배 받는 위치에 나타나는 공범주 대명사이다.
- 마. 공범주 연산자 O는 명시어 위치에만 실현될 수 있고, 반드시 이것이 지배하는 흔적(t)과 동지표화되어야 한다.
- 바. 국어에서 굴절소가 공범주 머리성분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중화상’의 표지이다.
- 사. 국어에서는 ‘V-I-C’ 공범주의 연속체가 구문규칙에 의하여 도입된다.

본론에서는 이상에서 제시된 원리와 가정들을 바탕으로 국어 연결어미 절의 통사적 지위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로 한다.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도 이 과정에서 수행될 것이다.

## 2. 앞선 연구 검토: 시간 선어말어미의 위치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연결어미 문장의 통사구조에 대한 종래 대부분의 연구는 초기 생성문법의 접속 구조 형식화의 틀을 가지고, 대등접속문이 이심적(exocentric), 평판(flat) 구조를 취한다고 가정하였다. 남기심(1985), 유현경(1986), 김영희(1988, 1991), 최재희(1991, 1997)에서는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을 구분하는 통사론적 검증법을 체계화함으로써 연결어미 절의 통사구조상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한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이들의 논의는 종속접속문을 부사절 내포문

---

10) (7나)는 양정식(2005: 265)에서 “한국어에서 흔적(t)은 보조사구(DP)인 경우와 머리성분으로서 동사(V)인 경우의 두 종류가 있으나, 나머지 공범주는 모두 보조사구로만 실현된다.”와 같이 서술되었으나, 이를 (7나)와 같이 바로잡는다. 위 책에서도 보문소구(CP) 범주인 연결어미 절이 CP의 부가어로서 CP 내부의 흔적과 연결되는 예를 인정하고 있다.



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귀착되었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sup>11)</sup> 어느 경우든지 대등 접속문을 선행절과 후행절이 계층구조상의 차이를 갖지 않고 일직선을 이루는, ‘평판 구조(flat structure)’로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연결어미 문장의 구조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을 그 대등접속문에 대한 처리에 주목하여 ‘이심 구조 접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에 대립되는 접근은 ‘동심 구조 접근’이다. 서두 (2)의 핵계층 도식들이 보여 주는 동심성이 이 접근의 기본 원리로 상정된다. 이 접근에서는 이른바 대등접속문도 (2)의 핵계층 이론을 준수하는 구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심 구조 접근의 여러 문제점들은 이 접근이 구조 표상과 관련한 명시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가령 남기심(1985)과 김영희(1988, 1991)에는 명시적인 구조 표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최재희(1985, 1991)에서는 대등접속문을 선행절-연결어미-후행절-종결어미가 문장(S)에 직접관할되는 4분지 구조로 표상하고 있다. 종속접속문은 선행절이 연결어미를 취하여 후행절 및 종결어미와 함께 문장(S)에 직접관할되는 3분지 구조로 표상한다. 유현경(1986)에서는 연결어미 문장을 대등접속 구조와 부사절 내포 구조로 구분하고, 후자는 다시 문장부사절 내포 구조와 성분부사절 내포 구조로 나누었다. 대등접속 구조는 선행절과 연결어미와 후행절이 일직선인 구조로 표상하고 있는데, 이는 생성문법 연구의 초기의 처리들에서 보는, 특별한 대등접속 구조를 가정하는 것이다.

첫째, 이와 같은 ‘평판 구조’ 표상의 비명시성의 문제점은 어미들이 가지는 지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는 독립된 통사적 존재로서 구 구조의 머리성분의 자격을 가지나, 평판 구조 표상은 이 점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다.<sup>12)</sup> 둘째, 이들은 모두 재귀대

11) 최근의 이익섭(2003)에서도 이들에 의해서 ‘종속접속절’이 부사절로 인식된 것을 국어 문장 구조 연구의 한 전환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필자는 ‘대등접속문’의 선행절도 부사절과 같은 통사적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이는 이미 이익섭·임홍빈(1983)에서 제시된 견해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종속접속문’의 일부, ‘대등접속문’의 일부를 ‘명시어 구조’로 분리해 내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논점인 것이다.

12) 연결어미 문장의 구조를 설정하는 종래의 많은 연구들이 어미에 대한 적절

명사의 조음 현상에 입각한 검증 방법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재귀대명사의 조음 현상이 엄격히 통사적 현상이라고 하면 그 통사구조의 해석에 관한 엄밀한 정의가 주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들의 ‘통어’ 또는 ‘성분통어’ 등의 개념은 매우 부정확하고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통사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예는 단언코 비문으로 판정되어야 하나, 이들이 설정하는 재귀대명사와 관련한 제약을 위반한 문장 구조들을 실제 발화에서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재귀대명사의 조음 현상이 일정한 통사적 제약을 가지는 것이지만, 통사구조와 의미구조의 대응 과정에서 그 규칙성을 기술해야 하는 현상임을 보이는 것이다.<sup>13)</sup>

위 첫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부연하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제소’라고도 불리는 시간 선어말어미들의 지위를 정하는 일과, 선행절 및 후행절에 대한 연결어미의 선택제약의 특성을 포착하는 일이 이심 구조 접근에 대한 난점으로 주어진다. 특히, 연결어미 중에는 후행절의 서법을 제약하는 부류가 존재하며, 또한 선행절이나 후행절의 시간 선어말어미의 실현을 제약하는 것이 존재한다. ‘-지만’, ‘-는데’는 ‘대등접속’의 특징을 가진다고 지적되어 온 어미인데, 후행절의 서법에 대한 제약을 가진다. 종래의 연구에서 누구나 ‘종속접속’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아 온 ‘-거든’도 후행절에 대한 서법 제약을 가진다. 또한, 연결어미 ‘-더니’와 ‘-자’는 공통적으로 후행절이 미래 의미인 것을 배제한다. 이렇게 연결어미가 선행절, 또는 후행절을 지정하여 선택제약을 부여하는 국면을 이심적, 평판 구조의 표상에서 적절히 나타낼 방법은 없다.

연결어미들이 그 시간 선어말어미와의 상호 관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점에 관해서는 남기심(1975)에서 중요한 관찰이 있었다. 국어의 연결어미 절들을 시간 선어말어미들의 실현 가능성, 이들 어미들이 실현될 때의 절대 시제, 상대 시제의 해석 가능성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부류를 제시하고 있다.

---

한 고려를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은경(2000: 86쪽 이후)에서도 보인다.

13) 재귀대명사의 조음 현상에 대해서는 4.5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 (8) 가. ‘-고도, -고서, -도록, -으러, -으려고, -자; -어서’: 아무런 시간 선어말어미를 취하지 않는다. ‘-어서’는 시간 선어말어미를 취하지 않는 점에서는 같으나, 형용사에 첨가될 경우 후행절 사건시 기준 현재, 동사에 첨가될 경우 후행절 사건시 기준 과거가 된다.<sup>14)</sup>
- 나. ‘-다가, -으면, -면서, -어야, -기에’: 항상 후행절 사건시가 기준 시점이 되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만든다.
- 다. ‘-지만’: 항상 발화시가 기준 시점인 시간적 선후관계를 만든다.
- 라. ‘-거나, -고, -으며, -는데’: 둘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뜻에 따라 그 기준 시점이 달라진다.
- 마. ‘-으니까, -으므로, -어도, -거든’: 언어 외적 상황이나 기타 형편에 따라 발화시 기준, 후행절 사건시 기준이 유동한다.

남기심(1975)에서 위와 같은 사실은 국어에 문법범주로서의 시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시된 것인데, 이는 이들 연결어미가 실현되는 문장 구조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이다. 둘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뜻에 따라 그 기준 시점이 달라지는 것으로 제시한 (8라)의 ‘-거나, -고, -으며, -는데(일부 용법)’는 그 구조적 형상에 따라 선행절이 후행절의 시간 선어말어미의 영향권에 놓이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뒤의 3.3절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이들 연결어미의 절을 IP의 부가어로 설정할 것이다. 언어 외적 상황이나 기타 형편에 따라 발화시 기준, 후행절 사건시 기준이 유동하는 예로 든 (8마)의 ‘-으니까, -으므로, -어도’(‘-거든’은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어미로서 제외된다)도 (8라) 부류의 연결어미들과 그 구조적 위치를 다르게 볼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이들 연결어미의 절도 IP의 부가어로 설정할 것이다.

14) ‘-어서’는 형용사에 첨가될 경우 후행절 사건시 기준 현재, 동사에 첨가될 경우 후행절 사건시 기준의 과거를 만든다고 하였으나, 후행절을 기준으로 어느 완료된 상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통일적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고도’와 ‘-고서’는 후행절 사건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며, ‘-도록’, ‘-으러’, ‘-으려고’는 후행절 사건시를 기준으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런데 남기심(1975)에서는 ‘-고도’가 후행절 기준의 과거만을 표현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가령 “그는 알고도 모른 채 한다.”와 같은 예에서 선행절은 후행절과 동시의 해석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남기심(1975)의 목적은 시간 선어말어미들의 시제 문법범주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는 ‘무시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무시제 가설의 입장을 받아들인다.<sup>15)</sup> 그러나 (8)의 5가지 부류 각각에는 이질적인, 제삼의 특성을 가지는 부류로 분리해야 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8가)의 ‘-자’, (8나)의 ‘-기에’, (8다)의 ‘-지만’, (8라)의 ‘-는데’, (8마)의 ‘-거든’은 이 연구에서 ‘명시어 구조’라고 지칭하는 구조(3.2절 참조)를 형성하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시간적 선후관계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들은 발화시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선행절을 특정의 시간적 위치에 놓는 기능을 연결어미 자체의 특성으로 가진다.

일례로, (8나)의 ‘-기에’에 대한 특성화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발화시를 기준 시점으로 만드는 본질적인 기능을 가진다.

(9) 그는 내일도 이 주장을 펼칠 것이기에 나는 오늘 반대 증거를 준비해 놓겠다.

특히 ‘-자’는 발화시 이전의 시점을 다시 참조시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영어와 같은 언어의 ‘과거 시제’ 요소가 가지는 기능을 보이는 것이다. 후행절이 미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은 제약된다. 이 점에서 (11) 예문의 ‘-더니’도 같다.<sup>16)</sup> 더욱이, (11)은 선행절의 시제가 후행절 사건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식의 풀이가 여기에 적용될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10) 가. 해가 지자 양떼들이 돌아왔다/돌아온다.

cf. \*해가 지자 양떼들이 돌아올 것이다.

나. 어제는 눈이 오더니, 오늘은 비가 내렸다/내린다.

cf. \*어제는 눈이 오더니, 오늘은 비가 내릴 것이다.

---

15) 필자는 영어에 시제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핵심적인 특성은 참조시를 정하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의미의 시제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임을 이후의 논의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6) 물론 ‘-자, -더니’의 이런 기능에 입각하여 이들 연결어미를 과거 시제 요소로 규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A < B’와 같은 표시는 A가 B의 이전 시간(앞으로 ‘이전시’로 지칭)임을 나타낸다.

- (11) 철수는 자기가 일착이라고 하더니, 그보다 먼저 정상에 도착한 사람이 있었네.  
(후행절의 사건 시점<선행절의 사건 시점<발화시)

영어의 경우, 시제 요소가 가지는 본질적인 기능은 참조시 설정의 기능이다.<sup>17)</sup> 그러나 국어에서는 일단의 연결어미가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더니’를 제외하더라도, ‘-자, -기에, -지만, -는데, -거든’ 등의 연결어미는 발화시 기준의 특정 시점을 참조시로 부여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를 반대 방향에서 보면, 선행절이 후행절 사건시 기준의 시간 해석을 일관되게 받을 수 없는 특징이라고 서술할 수 있다. 이 점은 이들 연결어미를 다른 연결어미들과 구별하는 통사적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18)</sup>

- (12)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연결어미들:

-자, -더니, -거든, -거니와, -는데, -지만, -으나, -기를, -기에,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기로서니, -지

이 점은 시제 가설에서는 제대로 포착해 기술할 수 없고, 다만 무시제 가설의 입장에서만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다.

동심 구조 접근을 취하는 논의로 김지홍(1998), 김정대(1999, 2005), 이익섭·임홍빈(1983), 임홍빈 외(1995), 이은경(2001) 등의 연구가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동심 구조 접근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된 논의는 김지홍(1998)이다. 이는 핵계층 이론에 입각한 최초의 본격적 논의이다. 그는 연결어미 문장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에서 도출된 다양한 통사적 검증 기제들을 충실히 반영하는 통사구조 표상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어 접속문에 대한 이와 같은 동심 구조 접근에 대해서 우리는 앞 절에서 제시한 핵계층 이론 및

---

17) Reichenbach(1948), Hornstein(1990)에서는 과거 시제 요소와 미래 시제 요소가 각각 발화시 이전 시점과 발화시 이후 시점을 참조시로 설정하는 기능을 그 본질적 기능으로 가진다고 보고 있다.

18) 이러한 판단에 따라 통사적 검증 기제를 보이는 3.1절의 (표1)에 이를 다시 제시할 것이다.

관련 통사적 원리들이 준수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김지홍(1998)이 그 이전의 접속 구조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적 접근들을 광범위하게 돌아본 결과로서 제시한 구조는 뜻밖에도 핵계층 이론이 부과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는 대등접속문에서 후행절이 머리성분인 선행절 연결어미에 부가되는 통사구조를 제안하고 있다(13가). 종속접속문은 선행절이 후행절에 부가되는 구조라고 한다(13나).

(13) 가. 대등접속문의 구조: [ $\&P$  [명시어] [ $\&'$  TP [ $\&$  &  $\&P$  ]]

나. 종속접속문의 구조: [ $\&P_2$  &P1 [ $\&P_2$  [명시어] [ $\&'$  TP &]]] (김지홍 1998: 46)

(13가)에서 TP(시제소구)가 선행절이며, 맨 뒤의 &P(접속사구: ‘&’는 접속사로서, 국어에서 연결어미에 해당함)가 후행절이다. 특이한 것은 절 단위로서의 후행절(&P)이 머리성분인 선행절 연결어미(&)에 ‘핵어 부가’된다는 점이다. 선행절 어미와 후행절이 머리성분(핵어)이 되어 선행절의 선어말어미까지를 TP로 해서 보충어로 취하고, 다시 그 앞에 명시어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서두(2)의 핵계층 도식을 위반하는 구조이다. 머리성분에 부가되는 것은 머리성분으로 한정되는 것이 핵계층 이론의 일반 원리를 이루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핵어 부가는 (2가) 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 따라서 (13가)의 구조는 ‘구조보존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이심 구조 접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근본 이유는 대등접속문의 경우만을 위한 특례의 구조를 작위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13가)는 이에 준하는 문제를 범하는 것이다.

그는 (13가)의 ‘핵어 부가’의 구조가 대등접속문을 종속접속문과 통사적으로 구별하는 6가지의 특징들을 모두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50-56쪽). 그러나 종래의 연구에서 제시되어 온 그 6가지 특징들이 과연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의 통사구조의 차이를 직접 반영하는 것인지도 아직 입증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특징의 통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3절과 4절에서 논의하겠지만, 한 예로, 재귀대명사의 조응과 관련된 특징은 연결어미 절들의 대등/종속 구조의 차이와는 무관하다(4.5절 참조).

연결어미 문장의 통사구조를 기술하는 데에 시간 선어말어미들의 실현을 중

심으로 한 시간적 선후관계 해석의 문제를 관련짓는 연구들이 근래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동완(1988, 1996), 최동주(1994), 김정대(1997, 2005)는 시간 선어말어미들의 통사구조 속에서의 위상에 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연구인데, 이들의 분석은 하나같이 연결어미 문장에서의 시간 선어말어미의 기능에 대한 남기심(1975)의 관찰과 유형화를 기본 인식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국어에 시제 체계가 존재한다는 통념을 정당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동완(1996)에서는 ‘대등접속문-절대시제 해석, 종속접속문-상대시제 해석’이라는 도식을 제시했다. ‘-지만’ 문장과 ‘-고’ 문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sup>19)</sup>

(14) 가. 명수는 학교에 갔지만 영수는 극장에 갔겠다.

나. [<sub>S</sub> [<sub>S</sub> [<sub>S</sub> S INFL] COMP] [<sub>S</sub> [<sub>S</sub> [<sub>S</sub> S INFL] INFL] COMP]]

(15) 가. 명수는 학교에 갔고 영수는 극장에 갔겠다.

나. [<sub>S</sub> [<sub>S</sub> [<sub>S</sub> [<sub>S</sub> S INFL] COMP] [<sub>S</sub> S INFL]]] INFL] COMP]

그는 또 시제 요소들의 분포와 관련하여 ‘성분통어 조건’을 제시했다. A가 B에 의해 성분통어될 때 그 기준 시점은 B가 지시하는 시점이 되고, 그 외에는 발화시가 기준 시점이 된다는 것이다(112쪽). 그러나 ‘성분통어’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는 매우 모호하다고 하겠다.<sup>20)</sup>

시간 선어말어미의 역할을 통사구조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간주하는 견해가 김정대(1999, 2005)에서 제시되었다. 김정대(1999)에서는 시간 선어말어미

19) 그는 Chomsky(1981)의 핵계층 구조 기술 방식에 따라 문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고’ 문장의 구조를 S’ 아닌 S의 부가어 구조로 기술하는 (15나)는 3절에서 제시하는 필자의 생각과 공통되는 것이다. ‘-지만’ 문장의 구조인 (14나)는 김지홍(1998)의 종속접속 구조 (13나)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20) 최동주(1994)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 바탕에서 연결어미 문장의 시간 관계를 기술하고 있으나, ‘-으면, -어야, -어도, -더라도, -으니까, -는데’ 등의 문장이 절대시제로 해석되는 등, ‘대등접속문-절대시제 해석’의 도식화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통사구조를 형식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 가지는 의미의 영향권에 따라 접속문을 4가지로 유형화한다. 선행절과 후행절이 각각 시제소 T의 보충어로 설정되는 것, 선행절과 후행절의 접속이 T의 보충어로 설정되는 것, 후행절만이 T의 보충어가 되고 선행절은 이 T의 통사적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 그리고 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sup>21)</sup>

- (16) 가. [ [VP1] T1 ]+[ [VP] T2 ] : [남편은 발을 갈]왔고 [아내는 씨를 뿌리]었다  
 나. [ VP1 + VP2 ] T : [철이가 학교에 가서 돌이를 만나]왔다  
 다. [ VP1 ] + [ [VP2] T ] : 순이가 잠자리를 잡으려고 [잠자리채를 들]었다  
 라. 형상화 불가능 : 돌이가 모자를 썼다가 벗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결어미들 중에는 발화시와 동시, 발화시의 이전시, 발화시의 이후시로 참조시를 설정하는 것들이 있다. 김정대(1999)에서는 ‘-지만’은 (16가) 유형에 귀속되며, ‘-거든’과 ‘-는데’는 둘 다 (16나) 유형과 (16라) 유형의 두 가지 유형에 귀속되는 동음이의적 요소들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지만’과 ‘-는데’(‘대조’ 의미의 경우)는 발화시를 참조시로, ‘-거든’은 발화시 이후의 시점을 참조시로 설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 앞의 (10), (11)을 통하여 보였듯이, ‘-자’, ‘-더니’는 발화시 이전의 시점을 참조시로 설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는 연결어미들이 영어의 시제 형태소들이 가지는 기능을 가진다는 뜻이 된다. (16)은 시간 선어말어미를 중심으로 한 절대 시제/상대 시제 해석의 차이를 기준으로 연결어미 문장의 통사구조 유형을 나누고 있지만, 이 같은 처리로는 참조시 설정의 기능을 가지는 연결어미 부류들의 특성을 포착하지 못한다. 그의 유형화는 이렇게 연결어미들의 시간적 선후관계 해석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언어학적으로 의의 있는 유형화라고 하기 어렵다.

(16라)의 ‘형상화 불가능’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행절의 ‘-있-’이 과거 시제를 표시하는 것은 후행절의 ‘미래’ 시제가 기준 시점을 형성함으로써, 상대 시제 해석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돌이가 모

21) VP는 주어를 포함하고 어미를 제외한 문장 단위이며, ‘T’는 ‘시제 요소’, ‘+’는 ‘접속어미’를 표시한다.



자를 쓰다가 벗을 것이다.”처럼 ‘-었-’을 갖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대 시제’ 해석이 주어지므로 두 경우의 ‘-다가’를 동일한 것으로 유지하는 한 (16가-다)의 어느 유형에도 귀속시킬 수 없다는 난경에 봉착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대(1999)의 연구의 목적은 시제소(T)를 중심으로 한 연결어미 문장의 유형화인 것이다. (16라)는 결국 이러한 유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법범주로서의 시제와 그것에 입각한 시간적 선후 관계 해석의 논리가 유지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sup>22)</sup>

시제의 논리가 유지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김정대(1999, 2005)의 다음과 같은 ‘-고’ 연결어미 문장이다. (17가)는 그 선행절에 ‘-었-’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17나)는 ‘-었-’을 가지고 있다. 두 문장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 (17) 가. 남편은 밭을 갈고 아내는 씨를 뿌렸다.  
나. 남편은 밭을 갈았고 아내는 씨를 뿌렸다.

김정대(1999, 2005)에서는 이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그 의미 차이는 두 문장에서의 연결어미 ‘-고’의 의미가 ‘비분리적’/‘분리적’ 의미로 서로 다른 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두 연결어미가 동음이의적으로 다른 어휘항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의미 전이 현상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두 문장 (17가)와 (17나)가 의미가 다르고, ‘-었-’의 유무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변별된다면, 그 의미 차이는 ‘-었-’의 차이일 수밖에 없다. ‘-고’의 의미 차이가 아닌 것이다. 필자도 (17가)와 (17나)의 의미는 다르다고 보지만, 그 차이는 ‘-었-’이 가진 ‘완료’ 의미의 유무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판단한다. (17가)의 선행절이 시간적 선후 관계의

22) 김정대(1999: 80)에서는 시제 체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피하고자 하는 뜻을 피력하고 있으나, 그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시제 요소들의 기능을 부정소동의 연산자와 같은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시제 가설에 입각한 논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의 시제에 대해서 ‘연산자’ 관점이 유지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논의로 Enc(1987, 1996, 2004), Hornstein(1990) 참조.

해석에서 (17나)와 같이 과거의 해석을 가지는 것은 부가어로서의 선행절의 의미 해석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일 뿐이다. 부가어의 의미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곧 설명하기로 한다.

김정대(1999)에서 동음이의적 연결어미로 든 다른 예로 ‘-으니까’가 있다. 이 경우에도, 서로 다른 의미의 ‘-으니까1’과 ‘-으니까2’를 나누는 일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18) 가. (어제) 철수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시험에 합격했다.

나. 철수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시험에 합격했다.

(19) 지금 철수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시험에 합격했다.

여기에서도, (18)의 두 ‘-으니까’는 구분될 수 없다. 또한 (18가)와 (19)의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의미의 ‘-으니까’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지금’ 때문인 것이다.

(17가), (18가)처럼,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절의 형태소에 따라 과거 의미로 해석되는 다른 예로서 관형사절을 고려할 만하다.

(20) 가. 어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남기심(1972))

나. 어제 이곳을 지나간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선후관계 해석에 있어서 (20가)와 (20나)의 의미는 같다. 이 점에서 (17가)와 (17나)도 마찬가지이다.

위 (17)에서 ‘-었-’의 유무에 의한 의미 차이, 그리고 (20)에서 ‘-는’과 ‘-ㄴ’에 의한 의미 차이는 ‘완료’라는 상(aspect) 의미의 차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sup>23)</sup> 상의 범주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시간상의 과거를 표현할 수 있다. (17가)의 선행절이 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17나)의 선행절이 후행절의 과

23) 이는 남기심(1972)의 관점을 따르는 것이다. 양정석(2002가: 174-199)에서는 이 관점에 의한 시간 해석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논의를 보인 바 있다. 구체적인 시간 해석 방법의 기술은 양정석(준비중)에서 보이려고 한다.

거 의미와는 무관하게 절대 시제 과거의 해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상의 체계를 통하여 설명 가능하며, 부가어 구조의 설정은 이에 대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김정대(2005)에서는 (16가-다)를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의 차이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결과적으로 6가지 구조를 이끌어 낸다. 종속접속문은 CONJP(이 글의 CP에 해당)가 TP(=IP)에 부가되는 구조로, 대등접속문은 CONJP와 CONJP가 이어지는 구조('CONJP CONJP')로 표상하고 있다. 그는 뒤의 구조가 부가어 구조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일반적 핵계층 이론에 입각하여 해석하면, 이는 결국 부가어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의 대등접속문 표상은 (2마)의 도식에 따른 부가어 구조와 다른 것일 수 없는 것이고, 이는 대등/종속의 통사적 차이를 포착하려는 그의 원래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연결어미 문장에 대한 동심 구조 접근의 초기적인 형태는 이익섭·임홍빈(1983)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종속접속문은 물론, 대등접속문까지를 아울러, 그 선행절을 부가어('부사구')의 지위를 가지는 통사구조 형식으로 간주하였다. 종속접속과 대등접속이 통사구조상의 차이로 표상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점은 국어 연결어미 문장의 구조에 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결어미 절들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구조적 위치에 설정되고 있어(266쪽), 국어 연결어미 절들의 세분된 통사적 특징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핵계층 이론의 형식을 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임홍빈 외(1995)이다. 여기에서는 김지홍(1998), 김정대(1999, 2005)와는 달리 연결어미를 접속사 범주가 아닌, 어말어미 범주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필자의 기본 인식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임홍빈 외(1995)의 제안은 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의 기술에 있어서 간과하기 어려운, 매우 문제성 있는 가정들에 입각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모든 문장의 주어는 동사구(VP) 안에 기저 생성되는데('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 이 경우의 VP는 시제소 T의 보충어이고, 또 T에 의해 형성되는 TP는 뒤의 어말어미 C의 보충어인 것이다. 그런데, '먹었다'와 같이 연속하여 나타나는 동사와 T와 C는 하나의 성분으로 '재구조화'한다고 이들은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구조화 절차는 문법적 과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sup>24)</sup>

둘째, 이들은 국어의 기능 범주로 시제소 T와 어말어미 C 외에, 양태소 M(‘-겠-’), 주체존대소 H(‘-으시-’), 겸양소 Hu(‘-습-’) 등을 설정하고, 이 통사 범주들이 이루는 구인 TP, CP, MP, HP, HuP 등의 범주를 설정한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먼저, 국어에서 기능 범주들 사이에는 일정한 순서 제약이 주어진다. 임흥빈 외(1995)의 체계에서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능 범주들이 그 보충어로 특정 기능 범주의 구를 요구하는 것으로 기술해야 할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1절의 (3)과 같은 형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실행은 간결한 기술과는 거리가 먼, 매우 복잡한 것이 되어버린다. 순전히 의미적인 제약에 따라 그 순서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들의 ‘재구조화’ 개념이 가지는 난점과 함께, 선어말어미들 각각을 독립된 기능 범주로 설정하는 이들의 처리가 갖게 되는 근본적인 난점이다.

한편, 형태음운론적 측면에서도 난점이 있다. 기능 범주 형태소의 하나로 설정된 ‘-느-’(‘양태소’의 일종이라고 함)에 대해서 그 변이형태가 실현되는 형태음운론적 조건을 기술하는 일이 문제점으로 주어진다. 이것을 한 기능 범주로 상정할 때, 이 형태소는 ‘느’, ‘느’, ‘ㄴ’, ‘니’, ‘ㄹ’ 등의 변이형태로 실현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실현 조건은 규칙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는 결국 ‘-느-’를 독립된 형태소, 나아가 독립된 기능 범주로 설정하는 분석이 오류임을 드러내는 것이다.<sup>25)</sup>

셋째, 시간 선어말어미를 포함하는 문장의 의미구조와의 대응에 관하여 문제성 있는 가정을 하고 있다. 임흥빈 외(1995: 417)의 다음 예는 이 점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24) 이 점에 관해서는 양정석(2005: 3.4절)을 참조하기 바람.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은 원리매개변인 이론과 최근의 최소주의 접근에서 널리 받아들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주어는 IP의 명시어이며, ‘능격 동사 구문’에서만 VP의 명시어에 동지표로 맺어지는 흔적을 가진다고 본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양정석(2005: 4.1.4절)을 참고하기 바람.

25) 이에 대해서 양정석(2005: 76-88)에서 자세히 논증하였다.

(21)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며, 철수가 예전에 보던 책

이들은 이 예가 ‘-던’을 ‘-더-’와 ‘-은’으로 분리해야 하는 증거라고 판단한다. ‘-던’을 ‘-더-’와 (순수한 관형형어미로서의) ‘-은’으로 분리하지 않는다면 (21)에서 ‘-으며’에 의해 접속된 선행절과 후행절 중에서 후행절만이 ‘-더-’의 과거 의미에 의해 영향 받는 점을 포착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21)의 통사구조를 (22가)와 같은 것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이다(임홍빈 외 1995: 334-335). 그러나, (21)을 (22나)와 같은 구조로 표상하더라도 ‘-더-’의 의미 해석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2) 가.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며] [[철수가 예전에 보-]더-]]-은 책  
나. [p[<sub>CP</sub>내가 지금 보고 있으며] [p[철수가 예전에 보-~~Φ~~]]-던 책

임홍빈 외(1995)에서 (22나)를 배제한 이유는, 선행절이 구조적으로 ‘-더-’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면 ‘-더-’의 의미의 영향권 아래 놓이는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접속문에서의 시간 관계 해석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일 뿐이다.<sup>26)</sup> 그러나 이와는 아주 다른 관점이 가능하다. 과거 의미를 가지는 ‘-던’의 영향권 아래 놓이더라도, ‘지금’에 의해 선행절이 현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김정대(1999, 2005)에서 ‘-고’ 연결어미 문장인 위 (17)의 두 문장을 상이한 구조로 판단한 것도 시간 선어말어미의 구조상의 위치에 대한 이상과 같은 가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가어가 그 모체와 결합할 때, 결합된 구성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모체의 의미에 의존하지만, 모체의 의미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의미를 첨가할 수도 있고, 모체의 의미를 일정 부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시간 요소의 영향권 하에서도 이러한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26) <주22>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시제’를 연산자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기용(1980)에서 이러한 관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지시적 조응사로서의 관점(Partee 1984, Enc 1987), 부사로서의 관점(Hornstein 1990)도 가능하다. 본 연구의 관점은 부사로서의 관점과 가장 가깝다.

이것이 본 연구의 가정이며, 임흥빈 외(1995), 김정대(1999, 2005)의 가정과 다른 점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상정한 ‘3원적 병렬 체계’는 통사구조와 함께 의미구조, 음운론적 구조의 형성과 그에 대한 제약의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체계에서 부가어를 가진 구와 그 의미구조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형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어서’ 문장의 경우로서 부가어에 대응되는 의미구조 성분이 ‘방편’ 의미의 연산자 ‘BY’에 이끌리고 있다.<sup>27)</sup>

(23) 부가어 구조의 통사구조-의미구조 대응:

[<sub>XP</sub> YP<sub>i</sub> XP<sub>k</sub>] 또는 [<sub>XP</sub> XP<sub>k</sub> YP<sub>i</sub>]는 다음 의미구조에 대응된다(YP가 부가어).

┌ [의미구조]<sub>k</sub> ┐  
└ [BY[의미구조]] ┘

부가는 이와 같은 일반적 형식 아래 다양한 대응의 형식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위 대응 규칙은 최대투사인 XP(= X'')에 최대투사인 부가어 YP가 부가되는 가장 전형적인 부가어 구조의 경우로서, 서두의 (2마)의 구조인 경우이다. (2다)의 구조일 때에는 X'' 대신 X'만 바뀌면 된다.

이상의 검토는 시간 선어말어미의 개재 여부나 그와 관련한 시간적 선후관계의 해석이 종래의 ‘대등’/‘종속’ 접속의 구분을 지지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등’과 ‘종속’ 각각을 세분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대등접속의 대표적 연결어미로 알려져 온 ‘-고’ 부류는 종속접속 연결어미들과 함께 부가어 구조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오히려 앞의 (12)의 연결어미 부류는 시간적 선후관계 해석에서 뚜렷한 독립적 특성을 보인다. 이는 다음 절에서 ‘명시어 구조’로 특성화된다.

27) 연결어미에 따라 이 ‘BY’가 다른 연산자로 바뀌어진다.

### 3. 연결어미 절들의 구조적 차이

#### 3.1. 통사·의미적 특성들의 종합

앞 절에서 검토한 시간 해석과 관련한 특징 중 ‘-었-’ 부착의 가능성 및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의 가능성은 연결어미들의 구조적 차이를 밝히는 기준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후자의 특성을 가지는 연결어미들은 앞에서 (12)로 정리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이 밖의 8가지 검증 기제들을 40개의 주요 연결어미들에 대해서 적용한 결과를 다음에 표로써 보이기로 한다.<sup>28)</sup> 3절과 다음 4절에서는 이 표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표1) 연결어미 40개

	①‘었’ 부착 가능	②후행 절사건 시기준 해석	③후행 절선택 제약	④선행 절이부 정의영 향권에	⑤선행 절움기 기	⑥선행 절주어 생략	⑦주어 의이차 서술어	⑧선행 절재귀 사조응	⑨연결 어미반 복	⑩선행 절‘는’ 주제어	구조적 지위
거든	O	*	O	*	O	?	*	*	*	?*	명시어 구조
거니와	O	*	O	*	*	?	*	*	*	?*	
자	*	*	O	*	O	?	*	O	*	?*	
더니	O	*	O	*	?*	?	*	*	*	?*	
는데1	O	*	O	*	*	?	*	*	*	?*	
지만	O	*	O	*	O	?	*	O	*	?*	
으나	O	*	O	*	O	?	*	O	*	?*	
기를	*	*	O	*	*	?*	*	*	*	?*	
기에	O	*	O	*	?O	?	*	*	*	?*	
은들	*	*	O	*	?O	?	*	O	*	?*	

28) ‘O’는 해당 기제가 적용됨을, ‘\*’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음을 표시하며, ‘·’은 원리상 불가능함을 표시한다. ‘O/\*’ 표시는 뜻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⑥선행절 주어 생략’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앞에 위치한 상태로 주어 생략되는 경우만을 가리킴에 주의해야 한다(43절의 논의 참조).

배 달 말(40)

더라도	O	*	?O	*	O	?	*	O	?*	?*	
을지라도	O	*	?O	*	O	?	*	O	?*	?*	
을망정	O	*	?O	*	O	?	*	O	?*	?*	
기로서니	O	*	O	*	?O	?	*	O	*	?*	
지	O	*	O	*	*	?*	*	O	*	?*	
도록	*	O	*	O	●	●	*	●	*	?*	V' 부가어
게	*	O	*	O	●	●	*	●	*	?*	
고도	*	O	*	O	?O	O	O	*	?*	?*	VP 부가어
고서	*	O	*	O	O	O	O	*	?*	?*	
고자	*	O	?O	O	●	O	O	O	?*	?*	
으러	*	O	?O	O	●	O	O	*	*	?*	
으려고	*	O	?O	O	●	O	O	*	?*	?*	
어서	*	O	*O	O	O	O	O	O	?O	?*	
을수록	*	O	*	O	O	O	O	O	?*	?*	
느라고	*	O	O	O	O	O	O	?O	*	?*	
자마자	*	O	*	O	O	O	O	O	?*	?*	
다가1	O	O	*	O	●	O	O	?*	?*	?*	I' 부가어
으면	O	O	*	O	O	O	O	O	O	?*	
으면서	O	O	*	O	?*	?*	O	O/*	O	?*	
어야	O	O	?O	O	O	O	O	O	?*	?*	
으니까	O	O	*	O	O	?	*	O	O	?O	IP 부가어
으니	O	O	*	O	O	?	*	O	?O	?O	
으므로	O	O	*	O	O	?	*	O	?O	?O	
어도	O	O	*	O	O	?	*	O	O	?O	
는데2	O	O	*	O	?	?	*	O	O	?O	
고	O	O	*	O	*	*	*	?O	O	?O	
으며	O	O	*	O	*	*	*	?O	O	?O	
거나	O	O	*	O	*	*	*	?O	O	?*	
든지	O	O	*	O	*	*	*	?O	O	?*	
다가2	O	O	*	O	*	*	*	?O	O	?*	

위 표가 보이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4) 가. 명시어 구조는 ②, ③, ④ 특성들의 조합에 의해 변별된다.  
 나. V' 부가어와 VP 부가어는 ①, ② 특성들의 조합에 의해 변별되며, 이 중 VP 부가어는 ①, ②, ⑦ 특성들의 조합에 의해 변별된다.  
 다. I' 부가어와 IP 부가어는 ①, ② 특성들의 조합에 의해 변별되며, 이 중 I' 부가어는 ①, ②, ⑦ 특성들의 조합에 의해 변별된다.<sup>29)</sup>  
 라. VP 부가어와 I' 부가어를 한 부류로 묶어 주는 것은 ⑦의 주어의 이차 서술어로서의 특성이다.  
 마. ⑤, ⑥ 특성들의 조합에 따라 IP 부가어 중 일부를 변별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부류에도 이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 있어 이 가능성은 배제된다.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국어의 연결어미절들을 핵계층 구조에서의 기본적인 위치에 따라, 보충어인 연결어미 절(위 표에는 제시되지 않음)과 부가어인 연결어미 절, 그리고 명시어 구조에서 중간투사 범주 C'를 이루는 연결어미 절의 세 부류로 가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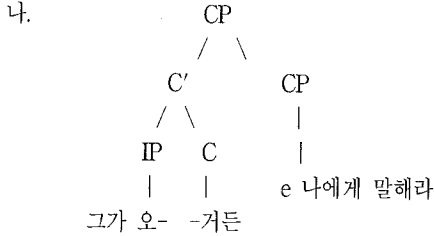
### 3.2. 명시어 구조

이 연구에서 새로이 분리하여 내세우는 특이한 부류는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연결어미들이다. 이들은 선행절을 C'로 만들고, 후행절 CP를 명시어로 취하여 연결어미 문장 전체인 CP 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나 명시어가 후행절 전체인 CP 형식을 취하는 경우 외에, 선어말어미인 굴절소(I)를 머리성분으로 가지는 IP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sup>30)</sup>

29) (24나)와 (24다)만을 비교해 보면 I' 부가어와 VP 부가어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①의 특성에서 둘이 상반됨을 주의해야 한다.

30) 이 점이 (3가)의 정리로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문장을 맺는 종결어미인 C가 그 보충어로 IP뿐 아니라 CP도 취할 수 있게 된다. CP가 C의 보충어로 취해질 수 있는 경우는 이 CP가 그 오른쪽에 명시어를 가지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보충어 구의 머리성분인 C와 이를 취하는 상위 구의 머리성분인 C가 복합 머리성분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제된다. 양정식(2005: 280)에서는 이러한 약정을 마련한 바 있다.

- (25)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연결어미(=(12)): -거든, -자, -지만, -으나, -거니와, -더니, -는데1, -기를, -기에,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기로서니, -지  
(26) 가. 그가 오거든 나에게 말해라.



기존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연결어미들 중 ‘-지만’, ‘-으나’는 대등접속문을, 나머지 연결어미는 종속접속문을 이루는 연결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들을 구조적으로 새로운 유형인 ‘명시어 구조’로 분리해 내는 주요 근거는 (24가)에 요약하였다. 즉,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을 체계적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㉔)과, 연결어미의 후행절 의미에 대한 선택제약의 사실(㉕)과, 후행절의 부정소의 선행 연결어미 절에 대한 영향권 해석이 불가능한 특징(㉖)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위의 통사구조 형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다.<sup>31)</sup>

### 3.3. 부가어 구조

#### 3.3.1. 주어, 목적어의 이차 서술어

부가어 구조를 이루는 연결어미 중에도 주어, 목적어의 이차 서술어를 이루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를 구분할 수 있다. 연결어미 절이 이차

31) 익명의 심사위원은 “서울은 물난리가 났지만, 부산은 가뭄이 들었다.”와 같은 예를 들어 (26나)와 같은 명시어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물난리가’가 IP의 명시어라면 주제어로 추정되는 ‘서울은’이 놓일 곳이 없다는 것이다. 종래의 일반적 견해대로 주제를 CP의 명시어 위치에 한정한다면 이는 실로 명시어 구조의 성립을 위협하는 예라고 할 것이다. 필자는 이 예에 대해서는 ‘서울은’을 IP의 명시어로, ‘물난리가’를 VP의 보충어로 분석한다. 그러나 종래의 ‘주제어’가 ‘구문규칙’의 방식으로 IP의 부가어로 도입되어 ‘대조적 초점’을 나타내는 경우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서술어를 이루는 경우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VP의 부가어, I'의 부가어, V'의 부가어이다((표1)의 ⑦ 참조).<sup>32)</sup> 먼저, 주어의 이차 서술어 위치를 그 구조적 특성으로 가지는 연결어미들과 그 통사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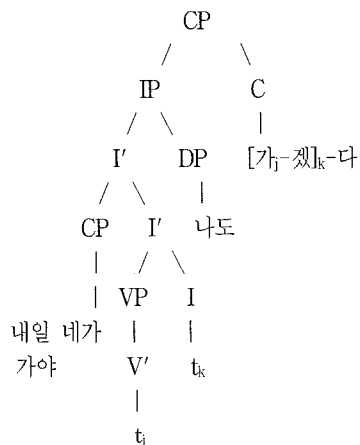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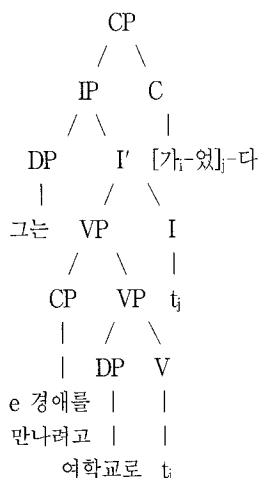
(27) 가. VP의 부가어를 이루는 연결어미:

-으려고, -고도, -고서, -고자, -으러, -어서, -을수록, -느라고, -자마자

나. I'의 부가어를 이루는 연결어미: -어야, -다가, -으면, -으면서

(28) 가. VP 부가어: ‘-으려고’ 절

나. I' 부가어: ‘-어야’ 절



32) 주의할 점은 이들 연결어미의 절이 언제나 이차 서술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서두의 (6나)의 규정에 따라, 연결어미 절이 그 명시어 위치에 O나 PRO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서술화 원리를 만족하기 위해 이차 서술어가 되는 것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수식어로서 허가된다.

33) 익명의 심사위원은 명시어가 왼쪽/오른쪽으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경애를 만나려고 그는 여학교로 갔다.”와 같은 예는 (28나)처럼 주어가 오른쪽에 놓이고, 따라서 ‘여학교로’도 주어 ‘그는’ 뒤로 이동해야 할 것인데 이 이동의 통사적 동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sub>CP</sub>[<sub>CP</sub>경애를 만나려고]<sub>i</sub> [<sub>CP</sub>그는 [<sub>VP</sub> t<sub>i</sub> [<sub>VP</sub>여학교로...가-았-다]와 같이 VP의 부가어 위치에 흔적을 가지는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다.

VP 부가어와 I' 부가어의 위치는 주어와 상호 최대통어하는 위치이다. 부가어인 연결어미 절의 기본 위치는 머리성분인 연결어미가 가지는 어휘적 정보로 기재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보충어인 연결어미 절이 동사가 가지는 어휘적 정보에 따라 선택되는 것과 대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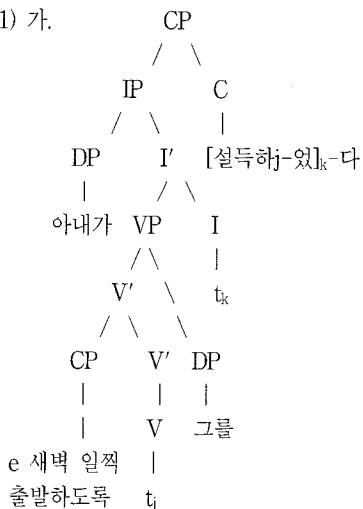
다음으로, 목적어의 이차 서술어 위치를 그 구조적 특성으로 하는 연결어미들과 그 통사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V'의 부가어는 목적어와 상호 최대통어하는 위치이다.

(29) V'의 부가어를 이루는 연결어미: -도록,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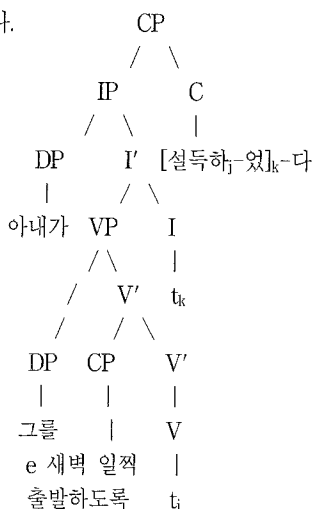
(30) 가. 아내가 새벽 일찍 출발하도록 그를 설득했다.

나. 아내가 그를 새벽 일찍 출발하도록 설득했다.

(31) 가.



나.



(31)은 (30)의 두 가지 어순에 따라 그 통사구조를 보인 것이다. (32)는 이와 같은 구조의 또 다른 예이다. (31가, 나), (32나) 모두에서, 목적어와 ‘-도록’ 절은 상호 최대통어 조건을 만족하여 통사적 주술관계가 허가된다.

(32) 가. 어린아이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어른들을 머쓱해지도록 만들었다.

나. [<sub>VP</sub> 어른들을 [<sub>V'</sub> [<sub>CP</sub> O<sub>i</sub> t<sub>i</sub> 머쓱해지도록] [<sub>V'</sub> 만들-]]-었다

같은 성격을 가지는 연결어미로 ‘-게’를 들 수 있다. ‘긴 사동문’을 만든다고 생각되어온 ‘-게’는 두 가지 상이한 구조를 형성한다. (33가)의 연결어미 절 ‘철수가 죽을 먹게’는 보충어인 반면, (33나)의 목적어 뒤에 나타나는 ‘죽을 먹게’는 부가어이다. (33나)는 목적어의 이차 서술어로서의 쓰임을 보여 준다. (34)에서 보는 것처럼, 두 구조의 차이는 문법성의 차이를 유발한다.

- (33) 가. 어머니는 철수가 죽을 먹게 하였다. (보충어 구조)  
 나. 어머니는 철수를 죽을 먹게 하였다. (부가어 구조)  
 (34) 가. \*철수는 맥주가 시원하게 하였다.  
 나. 철수는 맥주를 시원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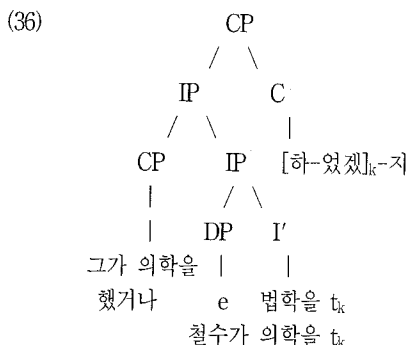
(33나)와 (34나)의 예는 양정석(2002: 5.4절)에서 ‘결과 구문규칙’이 적용되는 한 사례로 분석한 바 있다. 타동사를 가지는 결과 구문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구는 목적어를 ‘임자’(host: 또는 주어)로 하는 이차 서술어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들은 V’ 부가어의 한 부류를 이룬다고 하겠다.

V’ 부가어는 ‘-도록’ 절처럼 연결어미 고유의 특성에 따라 형성되기도 하고, (33나), (34나)에서처럼 구문규칙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결과 구문’을 형성하는 구문규칙은 어순을 부여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본다. 국어의 어순이 자유로운 것은 V’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부가어가 부착됨을 허용하는 핵계층 구조의 일반적 원리에 따른 현상이나 구문규칙 중 어순을 고정하는 성질을 가진 규칙이 적용되면 그 순서가 한 가지로만 고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 3.3.2. IP 부가어와 CP 부가어

연결어미 절들 중에는 주어나 목적어의 이차 서술어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그 기본적인 구조적 위치가 IP의 부가어인 연결어미 절이 있다. (35)는 (36)의 연결어미들이 실현되는 통사구조를 보인 것이다.

- (35) IP의 부가어를 형성하는 연결어미: 가. -고, -으며, -거나, -든지, -는데2, -다가2  
 나. -으니까, -으니, -으므로, -어도



(35가)는 대등적 연결어미로 알려진 것이고, (35나)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알려진 것이나, 그 기본적인 통사구조상의 위치가 IP의 부가어라는 점에서는 두 부류가 동일하다. 주절의 주어(여기서는 ‘e’ 또는 ‘철수가’)가 선행절을 최대통어하지 못하므로, 선행절인 연결어미 절은 이차 서술어가 되지 못한다. 또, 이것이 바로 앞 절의 I’ 부가어와의 주요 차이점이다(앞의 (24다) 참조).

다음으로, CP의 부가어 위치에 놓이는 연결어미 절이 있다. 이 경우는 그 기본적인 위치가 아니고, 언제나 후행절에 그 동지표화된 흔적을 가지는 선행사의 위치로만 한정된다. 한 예로, 앞에서 ‘-도록’ 연결어미 절은 V’의 부가어로 규정되었지만((31) 참조), 다음과 같이 문장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동 변형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37) 가. 새벽 일찍 출발하도록 아내가 그를 설득했다.

나. 나. [<sub>CP</sub> [<sub>CP</sub> O<sub>i</sub> t<sub>i</sub> 새벽 일찍 출발하도록]<sub>j</sub> [<sub>CP</sub> 아내가 t<sub>j</sub> 그를 설득했다]]

국어에서 CP의 부가어는 언제나 이동의 결과로서만 인정된다는 원리가 존재한다고 본다.<sup>34)</sup> 이러한 이동 변형에 의한 통사구조는 담화·화용론적 의미를

34) 우리는 이동 변형의 흔적을 포함하는 표상을 상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의 이동 변형 과정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일한 통사구조에 이동 변형의 흔적을 표상하여 선행사와 흔적 사이의 적격한 관계에 대한 조건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흔적은 Chomsky(1986)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공범주 원리와 하위인접 조건을 만족한다.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sup>35)</sup> (37)은 ‘무거운 명사항 이동 (Heavy NP Shift)’과 같은 변형의 효과가 실현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 3.4. 보충어 구조

연결어미 절이 보충어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이 전형적인 ‘동사구 보문’으로서, (38)과 같은 구조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그 절 표지로는 ‘보조적 연결어미’인 ‘-아’, ‘-게’, ‘-지’, ‘-고’ 등이 대표적인 것이나, 그 외에도 (40), (41)를 비롯한 다양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sup>36)</sup>

(38) [<sub>VP</sub> [<sub>CP</sub> . . . ] V ]

(39) 가. 그는 \*(돌을 던져) 보았다.

나. 그는 \*(꽃을 구경하고) 있다.

(40) 가. 어머니는 \*(철수가 죽을 먹게) 만들었다.

나. 어머니는 \*(철수가 죽을 먹도록) 만들었다.

(41) 가. 그는 \*(일찍 일어나려고) 시도하였다.

나. 그는 \*(철수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한다.

그 보충어로서의 특성은 이처럼 삭제의 방법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 4. 명시어 구조와 부가어 구조의 통사적 증거 검토

앞 절에서 제시한 연결어미 문장의 분류, 즉 명시어 구조와 부가어 구조로의 분류에서 근거가 되었던 통사적 검증 방법들의 의의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35) 필자는 통사구조와 의미와 직접 대응하는 문법 체계를 가정하므로, 이동 변형의 효과를 나타내는 통사구조가 특정의 의미 효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이 점에 있어서 원리매개변인 이론의 통사론 중심적 관점과는 상충될 수 있다.

36) 양정석(2005:5.3절) 및 양정석(2007)에서는 종래 보조동사 구문으로 다루어 지던 것 중 ‘-어 지-’ 구문 등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이 복합문 구조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보충어의 지위를 가지는 연결어미 절의 예는 위 논의에서 참조할 수 있다.

한다. 4.1과 4.2는 명사어 구조의 구별 근거로 중요시되는 것들이며, 4.3와 4.4는 여러 종류의 부가어 구조를 구별하는 근거들이다. 4.5와 4.6에서 논의하는 기준들은 개별 연결어미에 따른 의미론적 차이를 보일 뿐, 통사적 구별 근거로 간주할 수 없다.

#### 4.1. 연결어미가 가지는 선택제약의 특성

2절에서는 시간 선어말어미의 해석과 관련한 관찰을 통하여, 연결어미 절들이 시간적 선후관계의 해석을 기준으로 간단히 하위분류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자’, ‘-거든’과 같은 연결어미는 후행절 사건시 기준의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엄밀하게 보면 시간적 선후관계 해석의 기준은 이들 연결어미가 부여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연결어미가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에 대한 선택제약을 부여함으로부터 따라나오는 것이다.

동사나 서술성 명사가 그 논항을 하위범주화하거나 선택제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연결어미가 하위범주화 또는 선택제약을 가한다는 관점은 그리 일반화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앞의 (표1)에서 각각 명사어 구조, VP 부가어, I' 부가어를 형성하는 연결어미로 판정했던 ‘-거든’, ‘-으러’, ‘-어야’가 바로 그와 같은 특성(③)을 보이는 예들이다. ‘-거든’은 후행절이 ‘의도’의 양상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으러’는 후행절의 동사가 이동동사일 것을 요구한다. ‘-어야’는 ‘의도’의 문맥 중에서 서법으로서의 명령법과 청유법을 배제한다. 이는 선행절 연결어미가 후행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선택제약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42) -거든

- 가. 그 곳에 가거든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해라/전하자/전하겠다/전할 것이다.  
나. \*그 곳에 가거든 그 말을 전한다/전하느냐?

##### (43) -으러

- 가. 철수가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다/왔다.  
나. \*철수가 공부하러 도서관에 있다/서성거린다.



(44) -어야

가. 그 사람이 와야 나는 가겠다.

나. \*그 사람이 와야 너는 가라/우리는 가자.

(42)의 경우는 연결어미 ‘-거든’이 그 후행절을 명시어로 가짐으로부터 이와 같은 특성이 결과된다고 본다. (표1)에서 보인 명시어 구조 형성의 연결어미들이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한 부류로 묶인다. 그러나 (43), (44)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으러’와 ‘-어야’는 다른 측면에서 명시어 구조로 분류될 수 없는 두 가지의 중요한 통사적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앞 절에서 논의한, 후행절 사건 시 기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표1-②)이 그 하나이며, 다음 절에서 말할 부정의 영향권과 관련한 특성(표1-④)이 다른 하나이다.<sup>37)</sup>

(43)의 경우는, ‘-으러’가 그 명시어에 선택제약을 부과한다고 보기보다는, 구문규칙(또는 ‘부가어 대응규칙’)이라는 장치가 선행절인 연결어미 절과 후행절에 특정의 의미적 제약을 부과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sup>38)</sup> (44)에서의 ‘-어야’의 후행절에 대한 선택제약의 특성은 ‘당위적 조건’의 의미가 가지는 보편적,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설명 가능하다고 본다.

## 4.2. 부정의 영향권

시간적 선후관계의 해석, 선택제약의 특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검증 기제로 부정의 영향권에 관한 사실이 있다. 이 연구에서 명시어 구조를 설정하는 데에 주요 근거로 삼는 것은 이 특징이다.

37) 이은경(1998)에서 이전 연구들에서 선택제약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지적된 연결어미들을 정리하고 있다. ‘-으러’, ‘-어야’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는 ‘-고자’, ‘-느라고’, ‘-으려고’, 그리고 원인의 의미를 가지는 ‘-어서’가 있다. 또 ‘-느니’, ‘-되’, ‘-건만’, ‘-다시봐’, ‘-을진대’ 들도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들은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으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한 시도는 양정석(1995: 2장, 2002: 5.1절)을 참고할 수 있다.

‘부사어’와 부정의 영향권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가 생성문법적 연구의 초기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송석중 1981). 연결어미 절들 중 부정의 영향권 안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의 차이가 존재한다. 유현경(1986), 김영희(1988, 1991)에서는 종속적 연결어미의 절 중, 문장부사어에 해당하는 것과 성분부사어에 해당하는 것의 구별이 이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대등적 연결어미로 알려진 ‘-고’, ‘-거나’의 경우, 연결어미 절이 부정의 영향권 안에 드는 해석과 들지 않는 해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 (45) 가. 눈이 오고 비가 오지 않는다.  
나. 철이가 오거나 순이가 오지 않는다.

즉, (45가)는 눈과 비가 모두 오는 ‘연접’의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선행절을 그 부정의 영향권 안에 놓을 수도 있고, 눈이 오는 사실은 긍정, 비가 오는 사실은 부정함으로써 선행절을 부정의 영향권에 들지 않게 할 수도 있다. (45나)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두 사건, ‘철이가 오는 것’과 ‘순이가 오는 것’의 이접(disjunction)을 부정하는 해석이 가능함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정의 영향권 해석에 관한 이러한 특징은 이른바 종속적 연결어미 절과 공통되는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특히 김영희 1988, 1991)에 의해서 종속적 연결어미로 분류되는 어미들 중에서도 ‘-어서, -어야’의 문장은 선행절이 부정의 영향권 안에 드는 해석과 들지 않는 해석이 모두 가능한 반면, ‘-거든, -지만’의 절은 부정의 영향권 안에 드는 해석이 아예 불가능하다. 특히, 앞 절에서 선택제약의 특성을 가져 문제가 되었던 ‘-어야’는 다음의 비교를 통하여 ‘-거든, -지만’ 부류와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6) 가. 비가 와서 날씨가 춥지 않다. (선행절이 부정의 영향권에 드는 해석으로)  
나. 달이 떠야 꽃이 피지 않는다. (갈음)  
(47) 가. \*그곳에 가거든 내 말을 진하지 말아라. (갈음)  
나. \*비가 오지만 그는 길을 떠나지 않았다.(갈음)

주목할 점은, 대등적 연결어미 문장으로 알려진 (45)와 종속적 연결어미 문장으로 알려진 (46)이 같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두 구문 모두 부정의 영향권과 관련한 두 가지 해석을 얻을 수 있는데, 종래의 ‘대등접속’ 구조로는 선행절이 부정의 영향권 안에 드는 해석을, 종래의 ‘종속접속’ 구조로는 선행절이 부정의 영향권 안에 들지 않는 해석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충어 구조와 부가어 구조에서, 선행절은 후행절의 부정소의 영향권 안에 놓이는 위치이지만, 명시어 구조에서는 선행절은 기본적으로 후행절 내부의 부정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놓여 있다(3.2절의 (26다) 구조 참조). 이 연 구에서 명시어 구조로 분석하는 ‘-거든’, ‘-지만’, ‘-자’, ‘-거니와’, ‘-더니’, ‘-기 를’, ‘-는데1’, ‘-지’ 등 연결어미의 문장은 모두 (47)과 같이 선행절이 후행절 부정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45)와 (46)의 공통성은 이들이 공 통적으로 부가어의 지위를 가지는 점으로부터 설명된다.

명시어 구조는 (표1)의 ②, ③, ④의 세 가지 특성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다. 즉, 연결어미가 그 보충어인 선행절과 함께 그 명시어인 후행절에 의미적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며, 명시어인 후행절이 선행절의 선후관계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부정소를 포함하는 후행절은 명시어로서 이 부정소의 영향이 절의 경계를 넘어 선행절에 미칠 수 없는 것이다.

#### 4.3. 선행절 주어의 생략과 이차 서술어로서의 특성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은 선행절 주어에 따라 후행절 주어가 생략되는지(대등), 반대로 후행절 주어에 따라 선행절 주어가 생략되는지(종속)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검증 기제는 남기심(1985)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앞의 (표1)에서 ⑥의 ‘선행절 주어 생략’이 이 기준을 보인 것인데, 다음 (48나)가 그 핵심적인 차이점을 드러내 준다.

- (48) 가. 철호가 담배를 피우고 (철호가) 술도 마셨다.  
나. \*(철호가) 담배를 피우고 철호가 술도 마셨다.

- (49) 가. 나는 공부를 하려고 (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나. (나는) 공부를 하려고 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남기심(1985)에서는 후행절 주어에 따라 선행절 주어가 생략되는 (49나)와 같은 현상은 선행절이 내포절의 하나인 부사절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다음에서 내포절인 관형절이나 명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에 따라 생략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다.

- (50) 가. 순철이는 어제 순호에게 (순철이가) 전에 빌렸던 책을 돌려주었다.  
나. 그는 오늘도 (그가) 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남기심 1985에서)  
(50)' 가. (순철이가) 전에 빌렸던 책을 순철이는 어제 순호에게 돌려주었다.  
나. (그가) 회의에 참석하기를 그는 오늘도 거부하고 있다.

(48)과 (49)의 대비는 진정한 통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으려고’ 문장과는 달리, ‘-고’ 문장은 선행절의 주어가 생략되는 일이 불가능하다 (51). ‘-으려고’ 문장과 같이, 선행절만 주어를 가지고 후행절은 그것을 갖지 않은 형식도 적격하다(52).

- (51) \*담배를 피우고 철호가 술도 마셨다. cf. 공부를 하려고 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52) 철호가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셨다. cf. 나는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남기심(1985) 이래의 연구에서 이 차이를 이론적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고’류의 연결어미들이 대등접속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전제하는 것이었다.<sup>39)</sup> 그러나 앞의 (표1)에 제시한 통사적 특성들을 전반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 전제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53)은 이제까지 대등접속으로 믿어져 왔던 ‘-고’ 부류의 연결어미 문장들이며, (54)는 이들과 함께 IP 부가어를 취하는 연결어미 문장으로 분류된 것이다.

---

39) 이 점에서 대등접속문을 ‘평판 구조’로 기술하는 유현경(1986), 김영희(1988, 1991), 최재희(1991) 등의 이심구조 접근은 물론, 동심구조 접근의 김지홍(1998), 김정대(1999, 2005)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55)는 VP 부가어와 I' 부가어의 예들로서, 후행절에 선행절 CP의 흔적을 가지는 구조로 기술된다(앞의 (37) 참조). (56)은 명시어 구조의 예들이다.

- (53) 가. \*대규모 댐을 건설하며 중국이 인공위성을 띄워올린다.  
 나. \*공원을 걷거나 노인들이 정원을 가꾼다.  
 다. \*화투를 치든지 할일 없는 사람들이 잡담을 나누었다.
- (54) 가. ?말을 잘 하니까 철수가 변호사가 될 것이다.  
 나. ?친구를 믿어도 철수가 돈을 꾸어주지는 않는다.  
 다. ?고장을 잘 일으키므로 이 기계가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라. ?산길을 가는데 철수가 친구를 만났다. ('-는데2')
- (55) 가. 할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화투를 쳤다.  
 나. 서울에 도착하고서 철수가 집에 전화를 했다.  
 다. 짐을 푸느라고 철수가 몹시 애를 먹었다.  
 라. 할일이 없으면 철수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마. 할일이 없어야 철수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
- (56) 가. ?서울에 도착하거든 네가 우리 집에 전화를 해라.  
 나. ?바빴지만/?바빴으나 철수가 우리의 초대에 응해 주었다.  
 다. ?공부도 잘 하거니와 철수가 마음씨도 착하다.  
 라. ?집을 팔 결심을 하자 철수가 복덕방에 전화를 걸었다.  
 마. ?어제는 기운이 없어하더니 철수가 오늘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바. ?아무리 왜소하기로서니 철수가 그 가방쯤 못 들겠느냐?  
 사. ?소리쳐 말하기를 철수가 “그러면 안돼!”라고 하였다.  
 아. ?아들을 낳았는데 순희가 아무에게도 귀여움을 못 받았다. ('-는데1')  
 자. ?왜소한들 철수가 그 정도 힘이 없겠느냐?  
 차. ?\*그 일을 혼자 다 했지, 철수가 누구의 힘을 빌렸나?

확실히, ‘대등접속문’으로 알려져 온 연결어미 문장들, 즉 (53)은 이러한 형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배제된다. 그러나 ‘종속접속문’으로 알려져 온 (54)의 문장들도 (55)의 예들만큼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다. 또, (56)은 종래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등접속의 연결어미로 분류해 온 ‘-지만, -으나’를 포함하고 있다.<sup>40)</sup>

40) 김영희(1988, 2005)에서는 ‘-지만, -으나’ 연결어미의 문장을 종속접속문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함께 ‘-을망정,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 -을지언정, -는데, -되’ 연결어미 문장들을 종속접속문의 한 부류로서의 ‘대립접속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동’/‘종속’ 구분의 문제성을 보이는 또 하나의 예인 것이다.

‘-지만, -으나’ 문장은 명시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명시어 구조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가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맥락에 따라 다소 어색할지라도 (56)과 같은 문장들은 문법적이다. 공범주 대명사(pro)를 선행절의 주어로 가짐으로써, 이것이 후행절의 명사항과 동일시되어 적격한 통사구조로 허가받을 수 있다.

(54) 중에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53)처럼 분명히 비문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는 (53)이 통사적 요인에 의한 비문인 반면 이 외의 부적격 사례들은 어떤 의미적 요인에 따라 부적격한 것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제, 이상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48), (49)의 차이를 설명하기로 하자. 다음의 장치들을 이용하여 두 문장의 차이를 형식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57나)는 이미 앞의 절에서 상정한 것이다.

- (57) 가. 주어가 생략된 연결어미 절은 서두의 (6나), (7마)에 따라 CP의 명시어에 공범주 연산자 O와 그 동지표화된 흔적을 가지고 이차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나. ‘-고’ 연결어미 절은 IP의 부가어로, ‘-으려고’ 연결어미 절은 VP의 부가어로 표상된다.

(57가)는 (49나)와 같은 연결어미 절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현상을, 진정한 의미의 생략이 아니라, 공범주 연산자와 그 흔적을 포함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범주 연산자와 흔적을 포함하는 연결어미 절은 이차 서술어가 된다. 국어에서 이차 서술어인 연결어미 절은 공범주 연산자(O)와 그 흔적을 가지는 구조로, 또는 CP의 명시어에 공범주 대명사 PRO를 가지는 구조로 표상된다.<sup>41)</sup>

(58) 가.  $[_{CP} O_i [_{IP} \dots t_i \dots ]]$

나.  $[_{CP} PRO [_{IP} \dots \dots ]]$

41) 양정석(2005: 5.1.2절)에서는 관형절 중의 하나인 관계관형절을 이와 같이 공범주 연산자와 흔적을 가지는 구조로 표상한 바 있다. 모든 보문소(C) 머리성분은  $[-pred]$  자질을 갖지 않는 한) 공범주 연산자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58)에 따라 (51)의 통사구조를 표상하는 가능성은 다음 (51)’의 두 가지 구조이다. 그런데, I’나 VP에 부가되는 부가어와는 달리 IP의 부가어 위치에서는 모체가 되는 IP의 명시어인 주어(‘철호가’)와 상호 성분통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두 구조 중 어느 것으로도 CP인 ‘담배를 피우고’는 이차 서술어로 해석될 수 없다. 이에 비해서, ‘-으려고’ 절은 (49나)’과 같은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 (51)’ 가. \*[<sub>IP</sub>[<sub>CP</sub> O<sub>i</sub> t<sub>i</sub> 담배를 피우고] [<sub>IP</sub> 철호가 술도 마시-었-]]-다.  
 나. \*[<sub>IP</sub>[<sub>CP</sub> PRO [<sub>IP</sub> pro 담배를 피우-]-고] [<sub>IP</sub> 철호가 술도 마시-었-]]-다.  
 (49)’ 나. [<sub>CP</sub> pro 공부를 하려고]<sub>j</sub> [<sub>CP</sub> 나는 [<sub>VP</sub> t<sub>j</sub> [<sub>VP</sub> 도서관으로 향하-]]-었다]

이 설명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IP의 부가어를 이루는 연결어미 절 중에서도 ‘-고’ 부류는 선행절 주어의 생략이 불가능한 반면, ‘-으니까’ 부류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 차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된다. ‘-으니까’ 문장은 (59)의 구조로 허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고’ 문장에서 선행절인 CP는 (58)의 두 가지 형식 중 하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51가)’의 두 구조는 모두 이차 서술어로 허가받지 못하여 비문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60)도 비문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고’ 문장에서와는 달리, ‘-으니까’ 문장에서는 선행절 명시어가 채워지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pro를 주어로 가지는 (59)와 같은 구조가 가능한 것이다.

- (59) [<sub>IP</sub>[<sub>CP</sub> [<sub>IP</sub> pro 담배를 피우고 싶-]-으니까] [<sub>IP</sub> 철호가 밖으로 나가-었-]]-다.  
 (60) \*[<sub>IP</sub>[<sub>CP</sub> O<sub>i</sub> t<sub>i</sub> 담배를 피우고 싶으니까] [<sub>IP</sub> 철호가 밖으로 나가-었-]]-다.

끝으로, 같은 ‘-고’ 연결어미 문장이 (51)의 형식에 비하여 (52)의 형식으로 문법적 문장이 되는 이유를 살펴 보기로 하자. IP 부가어인 연결어미 절들은 그 정의상 후행절의 주어 다음 위치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52나)’과 (52다)’의 두 구조는 가능하다.<sup>42)</sup>

42) 익명의 심사위원은 (52다)’과 관련하여 “철호가<sub>j</sub> [<sub>CP</sub>[<sub>IP</sub>[<sub>CP</sub> O<sub>i</sub> t<sub>i</sub> 담배를 피우고] [<sub>IP</sub> 술도 마시]] 고] [<sub>IP</sub> t<sub>j</sub> 노래도 불렀-]]-다”와 같은 구조를 제시하고, 둘

(52)' 가. 철호가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셨다.

나. [<sub>CP</sub> [<sub>C</sub> [<sub>IP</sub> [<sub>CP</sub> 철호가 담배를 피우고] [<sub>IP</sub> pro 술도 마시-었-]]-다]]

다. [<sub>CP</sub> 철호가<sub>i</sub> [<sub>C</sub> [<sub>IP</sub> [<sub>CP</sub> O<sub>i</sub> t<sub>i</sub> 담배를 피우고] [<sub>IP</sub> t<sub>i</sub> 술도 마시-었-]]-다]]

(52다)'의 구조에서는 CP인 선행절 '담배를 피우고'가 이차 서술어로 해석된다. CP의 명시어 위치에 설정된 '철호가'와 공범주 연산자-흔적을 가지는 선행절 간에는 상호 최대통어 관계가 성립한다. 명시어 구조 이외의 연결어미 문장에서는 모든 연결어미 절이 주어가 생략된 형식으로 통사적 이차 서술어가 될 수 있음을 위 논의는 보여 준다.<sup>43)</sup>

#### 4.4. 선행절 옮기기의 의의

통사적 검증 기제로서의 선행절 옮기기((표1)의 ⑤)는 선행절이 주어를 가진 채로 후행절의 일부로 옮길 수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절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형식으로는 사실상 모든 연결어미 절이 후행절의 일부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심지어 전형적인 '대등접속문'의 '-고' 연결어미 절이 후행절의 주체어 다음 위치에 나타날 수도 있다((52다)' 참조).

선행절 옮기기가 '대등'과 '종속'의 두 연결어미 문장의 차이를 드러내는 기준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김영희(1978)에서이다. 그는 (61)'에서 선행절이던 '봄

째 절이 공범주 연산자(O)를 갖지 못하여 사실과 달리 비문으로 예측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구조로는 첫째 절이 이차 서술어인데도 상호 최대통어하는 논항을 갖지 못하여 부적격 구조가 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구조는 "[<sub>CP</sub> 철호가<sub>i</sub> [<sub>IP</sub> [<sub>CP</sub> O<sub>i</sub> t<sub>i</sub> 담배를 피우고] [<sub>IP</sub> [<sub>CP</sub> Ok t<sub>k</sub> 술도 마시고] [<sub>IP</sub> t<sub>j</sub> 노래도 불렀-]]]-다]"로서, 두 선행절이 이차 서술어로서 '철호가'와 상호 최대통어되어 적절한 구조로 판정받는 데에 문제가 없다.

43) '-고' 부류의 연결어미는 지배 능력이 없어서 그 명시어에 PRO의 생성을 허용하나, 그 외의 연결어미는 지배 능력이 있어서 PRO 명시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두 연결어미 부류의 차이라고 본다. 또, 관계관형절의 보문소(관형사형어미)와 '-고' 부류의 보문소(연결어미)는 그 명시어가 외현적 명사항이 아닐 경우 PRO나 O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제약이 주어진다고 본다(<주41> 참조). '-고' 부류 외의 연결어미들은 이러한 제약이 없다고 상정한다.



이 오면’, ‘해가 돋자’가 (61)에서 ‘삼입절’로 나타날 수 있다고 관찰하였다.<sup>44)</sup> 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63)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

- (61) 가. 제비는, 봄이 되면, 온다.  
 나. 그는, 해가 돋자, 길을 떠났다.  
 (61)' 가. 봄이 되면, 제비는 온다.  
 나. 해가 돋자, 그는 길을 떠났다.  
 (62) 가. \*소년은, 소는 풀을 뜯고, 잠을 잔다.  
 나. \*영수가, 철호가 그 일을 알거나, 그 일을 안다.  
 (62)' 가. 소는 풀을 뜯고, 소년은 잠을 잔다.  
 나. 철호가 그 일을 알거나, 영수가 그 일을 안다.  
 (63) 가설: 삼입절은 통사적 종속절이다. (김영희 1978: 23)

여기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IP 부가어를 이루는 연결어미 절인 (62)의 ‘-고, -거나’ 절과는 달리 (61가)의 ‘-으면’ 절이 ‘선행절 옮기기’가 가능한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sup>45)</sup>

- (64) 가. 소년은, 소가 달아나니까, 사람들을 불렀다.  
 나. 선생님이, 철호가 그 일을 고자질해도, 못 들은 채하였다.

여기에서도 앞 절의 설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62)에서 ‘소년은’, ‘영수가’, (64)에서 ‘소년은’, ‘선생님이’는 모두 후행절의 주어로서 전체 문장의(후행 절의) 명시어 위치로 옮겨가 있다. 각각의 통사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62)'' 가. \*소년은, 소는 풀을 뜯고, 잠을 잔다.  
 나. [<sub>CP</sub> 소년은<sub>j</sub> [<sub>C'</sub> [<sub>IP</sub> [<sub>CP</sub> PRO [<sub>IP</sub> 소는 풀을 뜯-~~Φ~~]-고] [<sub>IP</sub> t<sub>j</sub> 잠을 자-~~Φ~~]]-<sub>나</sub>다]  
 (64)' 가. 소년은, 소가 달아나니까, 사람들을 불렀다.  
 나. [<sub>CP</sub> 소년은<sub>j</sub> [<sub>C'</sub> [<sub>IP</sub> [<sub>IP</sub> 소가 달아나-~~Φ~~]-니까] [<sub>IP</sub> t<sub>j</sub> 사람들을 부르-~~었~~]-<sub>다</sub>]]

44) 다음은 모두 김영희(1978)의 예문이다.

45) (61나)의 ‘-자’ 연결어미 문장은 명시어 구조의 예이다. 곧 이어서 명시어 구조에서의 선행절 옮기기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고’는 CP의 명시어를 지배하지 못하는 연결어미이고, 따라서 이 위치에 반드시 PRO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가정<sup>46)</sup>에 따라 (62나)’’과 같은 구조가 주어졌다. 명시어에 PRO를 가지는 CP는 서두의 (6나)에 따라 서술화 원리를 만족시켜야 하고, ‘소년은’과 서술어 CP는 상호 최대통어 조건을 만족하므로, 통사적인 견지에서 이 원리는 만족된다. 그러나 그 의미 대응에 있어서는 주어인 ‘소년은’과 서술어인 ‘소는 풀을 뜯고’는 의미적 주술관계로 해석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62가)의 부적격성은 통사적인 요인과 의미적인 요인이 협동하여 발생한 것이다. 서술화 원리는 그에 대응하는 의미구조의 주술관계만을 제공하나, 그 의미구조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sup>47)</sup>

이에 비하여, ‘-고’류 연결어미 외의 연결어미는 CP의 명시어를 지배한다고 가정되므로 그 CP는 PRO 명시어를 갖지 않은 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통사적 이차 서술어로 해석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일반 부가어(IP 부가어)로 해석되기가 수월해진다. 이것이 (64가)가 적격성을 얻게 되는 이유이다.

(62가)의 부적격성은 의미론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62나)’의 구조로도 적격한 문장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이 그러한 예이다.

(65) 가. 철수는 몸이 똥똥하고 배가 나왔다.

나.  $[_{CP}$  철수는  $[_{C'}[_{IP}[_{CP}$  PRO  $[_{IP}$  몸이 똥똥하- $\phi$ ]-고]  $[_{IP}$  배가 나오-았-]]-다]]

(65)’ 가. 철수는 썩썩하고 진취적이었다.

나.  $[_{CP}$  철수는  $[_{C'}[_{IP}[_{CP}$  O<sub>i</sub>  $[_{IP}$  t<sub>i</sub> 썩썩하- $\phi$ ]-고]  $[_{IP}$  t<sub>i</sub> 진취적이-었-]]-다]]

이처럼, IP 부가어를 이루는 연결어미 절들도 둘로 나누어져서 그 적격성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러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이들을 IP의 부가어로 설정한 바로 그 점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46) <주43> 참조.

47) 다음 예와 비교해 볼 것. b.와 같은 문장이 현실의 발화와 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62가)와 b.의 적격성의 차이는 통사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인 것이다.

a. 친구는 떠나고 소년은 운동장에 혼자 남았다.

b. 소년은, 친구는 떠나고, 운동장에 혼자 남았다.

앞에서의 예 (61나)는 우리가 ‘명시어 구조’로 간주하는 것인데, 선행절 옮기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명시어 구조는 이와 같은 문장 형식을 배제하지 않는다. 후행절의 주어가 흔적(t)을 남긴 채로 전체 문장인 CP의 부가어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종래 대등적 연결어미로 다루어져 온 ‘-지만’, ‘-으나’의 절이 ‘-자’ 연결어미의 절과 같이 선행절 옮기기가 가능한 점이야말로 종래의 대등/종속 구분의 전체에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김영희(2005: 60)에서는 다음 예를 증거의 하나로 삼아 ‘-지만’, ‘-으나’의 문장을 종속접속문에 귀속시키고 있다.

- (66) 가. 식구는, 집이 넓지만, 돌뿐이다.  
나. 관중들은,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으나,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표1)은 ‘대등적 연결어미’가 아닌 예 중에도 선행절 옮기기가 불가능한 것이 더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절 옮기기’가 ‘대등’과 ‘종속’을 구분하는 통사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

선행절 옮기기와 관련한 다음 사실은 VP 부가어(‘-어서’ 절)와 IP 부가어(‘-으니까’ 절)의 구분을 정당화해 준다.

- (67) 가. 동두천은 어제 비가 와서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  
나. 동두천은 도로가 어제 비가 와서 매우 미끄럽겠다.  
(68) 가. 동두천은 어제 비가 왔으니까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  
나. \*동두천은 도로가 어제 비가 왔으니까 매우 미끄럽겠다.

CP의 명시어인 ‘동두천은’, IP의 명시어인 ‘도로가’를 가진 위 구조에서 IP 부가어인 ‘-으니까’ 절이 IP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배제됨을 (68나)는 보여 준다. 명시어 구조와 IP 부가어 구조가 중첩되는 예도 가능하다.

- (69) 가. 날이 덥거든 수영을 하고 배가 고프거든 식탁의 음식을 먹어라.  
나. [CP[CP[CP[C 날이 덥거든] [IP 수영을 하- $\phi$ ]]-고]<sub>i</sub> [CP[C 배가 고프거든]  
[IP t<sub>i</sub> [IP pro 식탁의 음식을 먹- $\phi$ ]]-어라]]

이 문장에는 ‘-거든’이 둘 나타난다. 앞의 ‘-거든’은 그 명시어로 IP(‘수영을 하-Φ’)를 취하여 CP를 형성하며, 이 CP는 다시 ‘-고’의 보충어가 된다. ‘-고’ 연결어미 절은 뒤의 ‘-거든’에 의해 형성된 명시어 구조에서 명시어인 절의 IP 부가어로서, 그 동지표화된 흔적(t)만을 원래 위치에 남기고 있는 것이다.

#### 4.5. 재귀대명사 조응의 의의

선행 연결어미 절 내의 재귀대명사가 후행절의 주어와 조응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종속접속문, 또는 부사절을 대등접속문과 구별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남기심 1985, 유현경 1986, 김영희 1987, 2005, 최재희 1991, 1997). 그러나 ‘자기’ 조응은 연결어미 절의 통사구조의 구별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 (70) 가.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서, 돌이가 시치미를 댜다.  
 나. 자기가 되게 앓고 나니, 철이가 환자를 이해하겠더라.  
 다. 자기의 아들이 합격을 했으나, 김씨는 기쁘지 않았다.  
 (71) 가. \*자기가 웃고, 돌이가 떠든다.  
 나. \*자기가 오든지, 철이가 오든지 할게다.  
 다. \*자기의 아들이 들어왔다가, 김씨가 들어왔다가 한다. (6예문, 김영희 1987)

필자는 (71)의 예들이 모두 통사적인 이유보다는 의미적인 이유에 따라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자기’가 선행절 주어의 관형어로 포함된 (71다)는 그 부적격성이 (71가, 나)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대표적 ‘대등적’ 연결어미인 ‘-고’의 문장에서도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72)’도 통사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72) 가. ?자기 아들이 현재의 규모로 회사를 일으켜 세웠고, 김씨는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만을 대 주었다.  
 나. ?자기의 아내는 이사이고, 김씨는 평사원이다.  
 다. ?김씨는 평사원이고, 자기의 아내는 이사이다.  
 (72)’ ?자기가 일부러 깃발을 들고, 철수가 앞에 나섰다.

또한, (70다)의 ‘-으나’는 ‘-지만’과 함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대등적’ 연결어미로 취급되어 왔지만,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룬다.<sup>48)</sup>

- (73) 가. 자기 아버지는 돈이 없지만, 철수는 웬지 씩씩이에 여유가 있다.  
나. 자기 아들이 시험에 낙방했으나 김씨는 승진에 성공했다.

연결어미 절의 ‘자기’의 실현 가능 여부는 (표1)의 ⑧로 요약하였다. 이 외의 구조에서도 국어의 재귀대명사 ‘자기’를 통사적 조건 ‘성분통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에 근본적인 난점을 제기하는 사실이 있다. 다음에서는 주어를 이루는 절이나 명사항의 일부인 ‘자기’가 목적어와 조응한다.<sup>49)</sup>

- (74) 가. 자기가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음/저질렀다는 것이/저질렀다는 사실이 철수를 괴롭혔다.  
나. 자기가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음/저질렀다는 것이/저질렀다는 사실이 철수를 괴롭게 했다.  
(75) 가. 자기의 과거의 실수가 철수를 괴롭혔다.  
나. 자기의 과거의 실수가 철수를 괴롭게 했다.

48) 김영희(1987, 2005)에서는 ‘-지만, -으나’를 종속적 연결어미로 취급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영희(2005: 62)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기’의 예는 비문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70다)와 다음 b.를 통사적 적격성의 차이로 구별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 a. \*자기가 재물복은 없지만 김씨가 자식복은 있다.  
b. \*자기가 승부에는 졌으나 돌이가 경기에는 이겼다.

필자는 a.와 b.가 통사적으로는 성립 가능하며, 다만 외현적인 대명사를 회피하는 담화·화용적 원리를 위반함에 따라 부적절한 것뿐이라고 본다. ‘-지만, -으나’는 명사어 구조를 형성하는 연결어미라고 간주하는데(3.2절 참조), 이를 바탕으로 이 절의 ‘자기’의 통사적 조건을 적용하면 위 예들은 통사적으로 부적격하지 않다.

49) 내포절의 주어와의 조응이 가능함을 보이는 다음의 문장들은 ‘자기’의 조응에 있어서 통사적 통어/성분통어 조건은 아니더라도 어떤 문법적 조건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필자는 통사구조 아닌 ‘의미구조’에서 목적어 ‘철수를’이 구조적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적어와 ‘자기’의 조응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본다. 의미구조의 형상성에 바탕을 둔 재귀사의 조응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Jackendoff(1992)를 참조.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하여, 필자는 ‘자기’의 존재가 연결어미 문장의 통사구조의 차이로서의 대등접속 구조와 종속접속 구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결론짓는다. ‘자기’의 실현에 최소한의 통사적 제약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 예문들에서의 ‘자기’에 따른 문법성의 차이는 통사적 요인보다는 의미론적 요인에 따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연결어미 문장에 관한 논의에서 재귀대명사에 대한 이론적 처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를 크게 통사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통사론적 관점은 다시 1)초기 생성문법의 ‘통어(command)’ 개념에 입각한 접근과, 2)‘성분통어(c-command)’ 개념에 입각한 접근을 구별할 수 있다. 후자의 성분통어 개념은 다시 (77)과 (78)의 두 가지 다른 정의가 통용되고 있다.

(76) Langacker(1969)의 통어 정의:

A를 관할하는 첫 번째 S 교점이 역시 B를 관할할 때 A가 B를 통어한다.

(77) Reinhart(1981)의 성분통어 정의:

A가 B를 성분통어한다는 것은 A를 관할하는 첫 번째 분지 교점 C가 역시 B를 관할한다는 뜻이다. C와 동일 범주 유형이면서 C를 직접관할하는 교점 C'이 B를 관할하는 경우에도 A는 B를 성분통어한다.<sup>50)</sup>

(78) Chomsky(1986)의 성분통어(최대통어) 정의(=각주 6의 b.):<sup>51)</sup>

A가 B를 성분통어(최대통어)한다는 것은 A를 관할하는 모든 최대투사가 동시에 B를 관할한다는 뜻이다.

(76)의 ‘통어’ 개념을 활용한 예는 유현경(1986), 최재희(1991)에서 볼 수 있다.<sup>52)</sup> 이들에 따르면 (70)에서 후행절의 주어는 부가어인 선행절 내의 ‘자기’를 통어하는 반면, (71)에서는 선·후행절이 접속 구조 ‘S-conj-S’의 각 S 교점이

50) 여기서 ‘동일 범주 유형’은 S와 S', VP와 VP'(VP에 부가된 성분을 가지는 경우)와 같은 것을 뜻한다.

51) 이는 흔히 ‘최대통어’로 지칭되는 정의로서, 여기의 ‘관할’은 May(1985)에 입각한 개념이다. 이 글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최대통어’ 개념이 이것이다.

52) 유현경(1986: 81)에서는 ‘대용화의 지배(command) 조건’이라고 하여,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통어(command)’ 개념을 의도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최재희(1991: 30)도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되므로, 후행절 주어에 의한 선행절 ‘자기’의 통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통어’ 개념과 관련한 다음의 반례를 만난다는 것이다.

- (79) 가. [<sub>S</sub> 철수<sub>i</sub>는 언제나 자기<sub>i</sub>를 내세운다 ]  
 나. \* [<sub>S</sub> 자기<sub>i</sub>는 언제나 철수<sub>i</sub>를 내세운다 ]  
 (80) 가. [<sub>S</sub> 중대장은 김상병<sub>i</sub>을 자기<sub>i</sub> 내무반으로 보냈다]  
 나. \* [<sub>S</sub> 중대장은 자기<sub>i</sub>를 김상병<sub>i</sub>의 내무반으로 보냈다]  
 다. [<sub>S</sub> 중대장은 자기<sub>i</sub> 내무반으로 김상병<sub>i</sub>을 보냈다]  
 라. \* [<sub>S</sub> 중대장은 김상병<sub>i</sub>의 내무반으로 자기<sub>i</sub>를 보냈다]

(79가)에서나, (79나)에서나, ‘철수’는 물론 ‘자기’를 통어하지만, 반대로 ‘자기’도 ‘철수’를 통어한다. 그러나 두 문장의 문법성은 분명히 다르다. (80)도 같은 점을 예증해 준다.

‘성분통어’ 개념을 활용한 예는 최재희(1997), 김지홍(1998), 김정대(1999, 2005), 김영희(2005)에서 볼 수 있다. ‘성분통어’의 정의도 엄밀하게 보면 다양한 형식들을 구별할 수 있지만, (77)과 (78), 어느 정의를 취하더라도 이들이 의도하는 것처럼 ‘자기’의 쓰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는 없다.

먼저, 연결어미 문장에 대해서 (77)의 성분통어의 개념을 활용하는 연구로 김정대(1999, 2005)을 들 수 있다. 김정대(2005)에서는 종속접속문의 선행절이 후행절에 부가되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하였는데,<sup>53)</sup> 이 구조에서 ‘철수’는 ‘자기’를 성분통어한다고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81나)가 비문임이 정확히 예측된다.

- (81) 가. 자기<sub>i</sub>가 지니까 철이<sub>i</sub>가 심술을 부린다.  
 나. \*철이<sub>i</sub>가 지니까 자기<sub>i</sub>가 심술을 부린다.  
 다. [<sub>VP</sub> [<sub>CONJP</sub> [<sub>VP</sub> 자기<sub>i</sub>가 지-] -니까] [<sub>VP</sub> 철수가 심술을 부리-]]

이에 대해서 자료의 측면과 그 ‘성분통어’ 개념의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할

53) (가, 나)는 김정대(2005: 139)의 예이며, (다)는 그의 설명에 따라 구성한 통사구조이다. 그는 시간 선어말어미를 갖지 않은 절을 ‘VP’로 취급하고 있다.

수 있다. (72), (73)은 그가 대등접속 구조로 상정하는 것인데, 그의 예측과는 달리, 통사적으로 부적격하지 않다. 또, (74), (75)는 통사적 조건으로서의 ‘자기’의 성분통어 조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sup>54)</sup>

(78)의 ‘최대통어’ 정의는 (81다)와 같은 구조에서 ‘철수가’가 ‘자기가’를 최대통어하는 것을 배제하므로, 이와 같은 구조의 가정 하에서는 (81가) 문장을 비문으로 예측한다. ‘성분통어’ 개념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대개 ‘중속접속문’의 구조를 (81다)와 같은 부가 구조로 간주하므로,<sup>55)</sup> (77)의 정의를 따르거나, (78)의 정의를 따르거나,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의미론적인 설명이 임흥빈 외(1995)에서 제시되었다. ‘자기’에 의한 대등/중속의 차이는 의미론적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 그 기본 입장이다. 이은경(2001)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따르고 있다. 필자는 ‘자기’의 조응이 통사적으로 대등/중속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종래의 통념을 부정하는 바이지만, ‘자기’의 해석과 관련한 일정한 통사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은 받아들인다. 그 통사적 제약은 재귀대명사가 통사구조에서 허가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조항이라는 성격만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자기’의 통사적 제약은 기본적으로 일반 대명사와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다.<sup>56)</sup>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기’에 대한 처리 방법을 구체화해 보기로 하자. ‘자기’를 포함한 대명사를 해석하는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sup>57)</sup>

---

54) 이들 문장이 가지는 문제는 이정민(1973), 김영주(1990) 등에서 제기한 바 있다. 양동휘(1983)에서는 Chomsky(1986)의 완전기능복합체(CFC)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기’의 통사적 해석을 설명하였으나, (74), (75) 유형의 예에 대해서는 동사가 ‘경험자’ 의미역을 가진다고 가정하여 비정규적인 경우로 다루고 있다.

김지홍(1998)에서는 대등/중속 접속문에서의 ‘자기’의 쓰임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완전기능복합체의 개념에 입각한 성분통어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역시 (74), (75)의 예를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55) 절 단위의 범주를 김경대(1999, 2005)는 VP로 상정하나, 다른 연구자들은 이를 S나 IP 등으로 상정하는 차이가 있다.

56) 재귀대명사와 일반 대명사를 하나로 다루고, 비-통어(비-성분통어) 조건을 두는 이러한 접근은 Langacker(1969), Jackendoff(1972)로부터 취한 것임을 밝혀 둔다.

57) 다음의 해석 알고리즘은 ‘자기’뿐 아니라 ‘그’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 밖



(82) 대명사의 통사적 해석 절차

- ① 대명사를 기준으로, 통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범위 내에서 비-대명사와 대명사의 순서쌍을 형성하라. 보기: (철수가, 자기를)
- ② 순서쌍의 두 항에 이미 지표가 부여되어 있다는 전제에서,<sup>58)</sup> 두 지표의 동지시를 가정하라. 보기: ((철수가<sub>i</sub>, 자기를<sub>j</sub>), (i=j))
- ③ 순서쌍을 이루는 두 항은 그 통사구조에서 다음 조건을 적용하여, 위반하는 것은 버리고, 위반하지 않는 것은 유지한다.
  - 비-성분통어 조건: 대명사는 비-대명사를 동지시하면서 성분통어해서는 안 된다.<sup>59)</sup>
- ④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명사를 기준으로 새로운 비-대명사를 찾아 ①-③의 절차를 반복하라.

이 절차의 적용에 따라 (83)은 살아남고, (84)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 버려진다. ①은 비-대명사와 대명사의 순서쌍을 문제 삼기 때문에, 대명사만을 가진 (83)은 ③의 비-성분통어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84)는 ‘(자기, 철수)’와 같은 순서쌍이 ③을 위반하므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다.

(83) 가. 자기는<sub>i</sub> 자기의<sub>i</sub> 잘못을 몰라. cf. \*자기는<sub>i</sub> 철수의<sub>j</sub> 잘못을 몰라.

나. 그는<sub>i</sub> 자기의<sub>i</sub> 잘못을 모른다. cf. ??자기는<sub>i</sub> 그의<sub>j</sub> 잘못을 모른다.

(84) 가. \*자기는<sub>i</sub> 철수를<sub>j</sub> 내세운다. cf. 철수는<sub>i</sub> 자기를<sub>i</sub> 내세운다.

나. \*그는<sub>i</sub> 철수를<sub>j</sub> 내세운다. cf. ??철수는<sub>i</sub> 그를<sub>j</sub> 내세운다.

다. \*자기는<sub>i</sub> 철수가<sub>j</sub> 영화를 비판하였다.<sup>60)</sup> cf. 철수는<sub>i</sub> 자기가<sub>i</sub> 영화를 비판하였다.

에 교호적 재귀대명사 ‘서로’도 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지만, ‘서로’는 부사로서의 어휘항목을 따로 가진다고 본다.

더 엄밀한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대명사’, ‘비-대명사’ 등의 표현을 ‘대명사를 포함한 DP’, ‘비-대명사를 포함한 DP’로 바꾸어야 한다. 이들 경우의 ‘DP’는 그 보충어인 ‘NP’가 가지는 대명사/지시적 표현 여부의 성질과 지시지표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가정이 또한 필요하다. (81-①,②)의 ‘보기’는 이러한 고려에 따른 형식을 보인 것이다.

58) 통사구조가 형성되면서 각 교점에 지시지표가 주어지는 것으로 전제하기로 한다.

59) 여기에서 ‘성분통어’는 위 (78)의 Reinhart(1981)의 개념을 상정하고자 한다.

60) 이는 임흥빈(1987: 329)의 예문으로서, 그 문법성 표시는 ‘??’로 되어 있다.

‘자기’ 또는 ‘그’가 완전히 배제되는 (84)의 예는 통사적 부적격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것이 위 ③의 조건이 정확히 의도하는 경우이다.

통사적 해석 과정과는 별도의 담화의미 해석 과정에서 (83) 등의 문장은 적절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미구조에 관한 각종 제약을 충족해야 그 적격성을 완전히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재귀대명사와 일반 대명사의 선행사에 대한 통사구조상의 제약은 (82-③) 말고는 없다.

4.3절과 4.4절에서 제시한 ‘-고’ 연결어미 문장의 구조와 관련하여 잠재적 문제를 제기하는 예로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보기로 한다. 첫째, 앞서의 예 (71)은 ‘자기’와 관련한 통사적 제약과는 상관없으나, 이 구문에 요구되는 다른 통사적 제약에 따라 비문이 된다. (71가, 다)의 예에 대한 통사적 해석으로 다음 두 가지 구조가 가능하다.

- (71)' 가. \*<sub>TP</sub> [<sub>CP</sub> PRO [<sub>TP</sub> 자기가 웃- $\Phi$ ]-고] [<sub>TP</sub> 돌이가 떠들- $\Phi$ ]-<sub>나</sub>  
 다. \*<sub>TP</sub> [<sub>CP</sub> PRO [<sub>TP</sub> 자기의 아들이 들어오-았-<sub>나</sub>]-다가] [<sub>TP</sub> 김씨가 들어오-았-<sub>나</sub>]-다가 한다
- (71)'' 가. [<sub>TP</sub> [<sub>CP</sub> 자기가<sub>i</sub> [<sub>TP</sub> t<sub>i</sub> 웃- $\Phi$ ]-고] [<sub>TP</sub> 돌이가 떠들- $\Phi$ ]-<sub>나</sub>  
 다. [<sub>TP</sub> [<sub>CP</sub> 자기의 아들이<sub>i</sub> [<sub>TP</sub> t<sub>i</sub> 들어오-았-<sub>나</sub>]-다가] [<sub>TP</sub> 김씨가 들어오-았-<sub>나</sub>]-다가 한다

명사어 위치에 PRO를 가진 CP는 이차 서술어로 허가되어야 하는데, (71)'의 구조에서 이 CP는 ‘돌이가’, ‘김씨가’와 상호 최대통어되지 못하므로 서술화 원리에 의해 허가될 수 없다. 그러나, (71)''와 같은 구조로 해석된다면 통사적 부적격성을 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82-③)의 통사적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결함을 찾을 수 없다. (71) 문장들은 단지 의미구조 층위에서, ‘-고’의 의미와 해당 부가어 대응규칙을 이용한 담화의미의 해석 과정에서 그 부적격성 판정을 받을 뿐이다. 통사적 부적격문이 아닌 것이다.<sup>61)</sup>

이 문장의 부적격성의 요인을 의미론적인 것으로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81-③)의 조건을 위반한 통사적 부적격문으로 판단하여 ‘\*’를 표시하였다.

61) (71다)''의 의미 해석 과정에서는(어순까지 고려하는 ‘정보구조’ 해석에서) ‘자기’ 아닌 ‘아들’이 담화에 도입되는 것이므로, (71가)''과 비교하여 용인가능성이

둘째, 4.3절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다음의 구조도 가능하다. 이들 예는 그 연결어미 절이 PRO를 가지는 CP 구조로 해석되어 통사적 이차 서술어로 허가되며, 또한 ‘자기’가 그 선행사와의 관계에서 (82-③)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적격한 구조로 판정이 된다.

(85) 가. 돌이가, 자기가 웃고, 떠든다.

나. [<sub>CP</sub> 돌이가<sub>i</sub> [<sub>C</sub> [<sub>IP</sub> [<sub>CP</sub> PRO [<sub>IP</sub> 자기가 웃- $\Phi$ ]-고] [<sub>IP</sub> t<sub>i</sub> 떠들- $\Phi$ ]]-<sub>C</sub>다]]

(85)' 가. 돌이는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답한다.

나. [<sub>CP</sub> 돌이는 [<sub>C</sub> [<sub>IP</sub> [<sub>CP</sub> PRO [<sub>IP</sub> 자기가 문제를 내- $\Phi$ ]-고] [<sub>IP</sub> 자기가 답하- $\Phi$ ]]-<sub>C</sub>다]]

그러므로, 조응사 ‘자기’의 통사적, 의미적 해석에서는 물론, 서술화 원리 등의 통사적 원리와 관련하여서도, ‘-고’류와 ‘-으니까’류의 연결어미 절을 IP의 부가어로 설정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IP 부가어를 이루는 연결어미 절들을 하나의 통사적 자연군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론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문법적 사실들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4.6. 동일 연결어미의 반복 가능성과 ‘-는’ 주제어

(표1)의 특성 ⑧, 즉 재귀대명사 조응과 관련한 문법성의 차이가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을 확연히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동일 연결어미의 반복 가능성 ⑨, 선행절의 ‘-는’ 주제어 출현 가능성 ⑩도 그러하다.

김영희(1987, 1988)에서는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부사절 내포문)을 구별하는 통사적 기준의 하나로 동일 연결어미의 반복 가능성을 든 바 있다. 이에 따르면 (86)과 (87), (88)의 차이는 통사적 적격성의 차이인 것이다.

(86) 가. 비는 오고, 날은 춥고, 갈 곳은 없다.

나. 돌이가 오거나, 철이가 오거나, 순이가 온다.

---

높아진다.

(87) \*비가 와서, 날은 추워서, 갈 곳은 없다.

(88) 가. \*돌이가 오는데, 철이가 오는데, 순이가 온다.(이상 4예문은 김영희 1987)  
나. \*돌이가 오거든, 철이가 오거든, 나한테 말해라.

그러나 종속접속문의 특징을 가진다고 알려져 온 연결어미의 절들도 적당한 상황맥락을 부여하기만 하면 반복이 가능하다(89). 뿐만 아니라,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연결어미 절도 반복이 가능하다(90).<sup>62)</sup>

(89) 그 사람이 오면, 약속된 금액을 안 가져왔으면, 싫은 소리를 좀 해 주어야겠다.

(90) 그이는 나의 기색을 살피더니 그만하면 되었다 하는 듯이 벌떡 일어나 자기 가 쓰는 가방을 가져오더니 그 안에서 흰 봉지를 하나 꺼내줬지요. (현진건, 그리운 홀진 눈)

종전에 대등접속문이나 종속접속문에 나뉘어 분류되던 예들이 본 연구에서는 부가어 구조 또는 명시어 구조로 분석된다. (86)과 같은 대등적 연결어미 절의 반복은 부가어의 반복 가능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89)의 ‘-으면’ 연결어미 절도 부가어의 성질에 따라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나무그림으로 보인 명시어 구조에서는 오른쪽의 명시어인 CP 자체가 다시 ‘[[IP-C]-CP]’와 같은 명시어 구조로 분지될 수 있는 것이다(3.2절의 (26다) 참조). (90)은 그 한 가지 사례이다. 그러므로 반복 가능성 여부에 의해 구별되는 것은 통사적 차이가 아니라 담화·화용적 차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87), (88)에서 부가어 구조,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연결어미 ‘-어서’, ‘-는데’, ‘-거든’의 절이 반복되기가 불가능한 것도 상황맥락의 제약에 따른 것일 뿐이다.

다음으로, ‘-는’ 주제의어의 실현 사실 역시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이 통사

62) 익명의 심사위원은 (89)가 진정한 의미의 접속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것이 국어 문장으로 사용된다고 할 때, 그 구조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어 구조’가 필자의 대안인 것이다. 다른 심사위원은 (90)의 두 ‘-더니’가 ‘통사 계층이 다른 접속절에 결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의 ‘-더니’는 ‘일어나’ 절에 결합된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렇게 분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어제 보았더니, 철수가 들어오더니 집안이 소란해졌어요.’와 같은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적 차이를 가진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sup>63)</sup> ‘-는’ 주제어를 활용하는 검증법에 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후행절만 주제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대등접 속문과 종속접속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김영희 1988). 선행절 주 어가 ‘NP-이’ 형식일 때 후행절의 ‘NP-는’ 형식이 불가능한 (92)는 대등접속문 의 대칭성으로부터 말미암은 현상이라는 것이 이 검증 기제의 착안점이다. (91)의 선행절은 이 기준에 따라 종속절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91) 가. 가을이 되니 날은 시원하다.

나. 아들이 상을 땀지만 어머니는 슬펐다.

(92) 가. \*몸이 튼튼하고 마음은 울곤다.

나. \*함박눈이 내리거나 싸락눈은 내린다. (이상 4예문은 김영희 1998)

‘NP-는’ 명사항의 존재가 그 통사구조상의 지위에 대해 말해 주는 점은, 이 것이 내포절의 성분으로 크게 제약되는 점이다. (91)에서 선행절의 주어가 ‘NP-는’ 형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이 선행절이 내포절이기 때문이다(채완 1976). 그러나 (92)에서 후행절에 ‘NP-는’이 배제되는 것은 이접(disjunction)의 연결어미 ‘-거나’가 가지는 특수한 의미적 효과 때문일 뿐이다. 이러한 특성은 연결어미 절들의 통사적 부류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둘째로,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에 ‘NP-는’ 형식의 주제어를 설정할 수 있으나 여부가 선행절의 후행절에 대한 독립성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고려되어 왔다. 유현경(1986)에서는 이를 대등접속문의 특징으로 간주하였는데, 김영희 (1988)에서는 선·후행절 모두에 ‘NP-는’ 형식이 설정 가능하다는 점이 다음과 같이 대등접속문이라 알려진 구조를 내부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이 된 다고 주장한다. ‘-고, -으며’와 ‘-거나, -다가’는 모두 대등접속의 연결어미로 알 려져 왔지만 다음과 같은 대비를 보이는 것이다.

63) ‘-는’ 주제어는 ‘NP-는’ 형식이 담화상의 주제를 표시하는지, 대조의 의미 를 나타내는지, 또는 문법기능으로서의 주제어인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잠정적 인 지칭이다.

- (93) 가. 경찰은 잠을 자고 도둑은 들끓고 한다.  
 나. 심성은 바르며 행동은 야무지다.  
 (94) 가. \*순이는 기타를 치거나 돌이는 기타를 친다.  
 나. \*소나기는 내리다가 가랑비는 내리다가 한다. (4예문은 김영희 1988)

공히 ‘대등적 연결어미’를 가진 문장들인 (93)과 (94)의 대비는 ‘NP-는’ 형식의 존재가 통사적 차이로서의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의 구조적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욱이, ‘종속접속문’으로 간주되어 온 문장들도 (93)처럼 선·후행절의 ‘-는’ 주제어가 실현 가능하며(95), (94가)의 특징을 보이는 동일한 연결어미가 (96)처럼 상반된 특징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때, ‘-는’ 주제어가 대등접속문을 두 하위부류로 나누는 통사적 특성이라고 보는 김영희(1988)의 생각도 받아들일 수 없다.

- (95) 가. 경찰은 경계를 펼지라도 도둑은 들끓는다.  
 나. 심성은 바르더라도 행동은 굼뜨다.  
 (96)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거나/하든지,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앞에서 우리는 ‘-고, -으며’와 ‘-거나, -다가’를 IP에 부가되는 부가어 절을 이끄는 연결어미로 간주하였다. 또, ‘-을지라도, -더라도’는 명시어 구조를 형성하는 연결어미로 간주하였다((표1) 참조). (93), (94)의 차이는 통사적 차이라기 보다는, 연결어미의 의미적 차이로부터 말미암는 현상인 것이다.

## 5. 결론

이 연구는 국어 연결어미 절들의 문장 구조에서의 지위를, 동심성과 범주교차성을 그 기본 원리로 가지는 핵계층 이론에 입각해서 검토해 보았다. 연결어미 절은 모두 연결어미를 머리성분(head)으로 가지는 구(phrase)의 구조로 파악되었다. 통사구조 형성과 관련한 이들 연결어미의 고유한 역할은 어휘적 차원에서

명시되며, 부가어나 C'를 이루어 전체 접속문 안에서 그 기능을 실현하는 것은 핵계층 이론의 독립된 원리에 따라 설명된다. 특히 C'의 머리성분이 되어 오른 쪽의 명시어를 선택제약하는 일단의 연결어미들을 확인하고 이를 분리해 내었다(명시어 구조). 요컨대, 연결어미 절은 보문소(C)를 머리성분으로 가지는 최대 투사 범주인 보문소구(CP)이거나 중간투사 범주로서의 C'이며, 핵계층 이론상의 세 가지 구조, 즉 보충어 구조와 부가어 구조와 명시어 구조로 분석된다.

이 연구에서는 보조적 연결어미 외의 대표적 연결어미 40개를 대상으로, 국어의 접속문 구조에 관한 이제까지의 통사론적 연구에서 주어진 통사적 검증 기제들을 평가·적용하였다. 그 기본적 착안점은 국어의 연결어미들이 구의 머리성분으로서 구의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를 결정하는 궁극의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연결어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97) 명시어 구조를 형성하는 연결어미: -거든, -거니와, -자, -더니, -는데1, -지만, -으나, -기를, -기에,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기로서니, -지(15개)

이 외의 연결어미의 절들은 보충어로 선택되는 경우 말고는 기본적으로 부가어의 지위를 가지며, 그 기본적 위치에 따라 V'의 부가어, VP의 부가어, I'의 부가어, IP의 부가어로 구분된다. 이 중 IP 부가어는 주어나 목적어의 통사적 이차 서술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셋과 큰 차이를 보인다.

- (98) 가. V' 부가어: -도록, -게1(2개)  
나. VP 부가어: -고도, -고서, -고자, -으러, -으려고, -어서, -을수록, -느라고, -자마자(9개)  
다. I' 부가어: -다가1, -으면, -으면서, -어야(4개)  
라. IP 부가어: -으니까, -으니, -으므로, -어도, -는데2, -고, -으며, -거나, -든지, -다가2(10개)

종래 '대등적 연결어미'로 간주되어 온 것은 (97)의 일부인 '-지만, -으나, -는데1'과 (98라)의 일부인 '-고, -으며, -거나, -든지, -다가2' 등이었다. 이 연구는

이들이 고유의 통사적 자연군을 이루지 못함을 분명히 하였다. 본문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통사적 검증 기제들은 명시어 구조와 4가지 부가어 구조를 구분하는 것 외에는 대등/종속의 구분을 지지하지 않는다. 종래에는 (표1)의 ⑤, ⑥을 위주로 대등/종속을 구분했지만, ⑤, ⑥은 이른바 ‘대등접속문’ 외의 연결어미 문장들과 공유하는 특성으로서, 이는 ‘대등접속문’이 통사적 자연군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표1)의 ②, ③, ④를 위주로 명시어 구조를 구별해 내고, 그 외의 기준에 따라 부가어 연결어미 절의 여러 종류를 구별한 것이다. ‘대등접속문’은 IP 부가어를 가지는 문장의 일부와 명시어 구조를 취하는 문장의 일부를 의미론적 고려에 따라 묶은 개념일 뿐이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구문분석의 체계를 프롤로그로 구현하는 일도 이들 논점을 뒷받침하여 준다. 이는 부록으로 보인다. 특히 명시어 구조의 구현은 프롤로그를 통한 구문분석기의 구현이 통사론적 분석의 결과를 지지함을 보이는 사례로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연결어미 문장에서 명시어 구조를 분리해 내는 것은, ‘평판 구조’의 접속 구조로만 인식하던 이 문장에서 새로운 구조적 제약을 찾아냈다는 의의가 있다.

## □ 참고 문헌 □

- 김영희(1978), 삼입절의 의미론과 통사론, 말 3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김영희(1987), 국어의 접속문, 국어생활 11: 56-66, 국립국어연구소.  
 김영희(1988), 등위 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1·202: 83-117.  
 김영희(1991), 종속접속문의 통사적 양상, 들머서재극박사환갑기념논문집.  
 김영희(2005), 한국어 통사 현상의 의의, 도서출판 역락.  
 김정대(1999), 한국어 접속문에서의 시제구 구조, 언어학 24: 75-108.  
 김정대(2005), 한국어 접속문의 구조, 국어국문학 138: 121-152.  
 김종록(1993), 국어 접속문의 통사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



- 김지홍(1998), 접속 구문의 형식화 연구, 배달말 23: 1-78.
- 남기심(1975), 이른바 국어 시제의 기준시점 문제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3, 계명대.
- 남기심(1985), 접속어미와 부사형 어미, 말 10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 송석중(1981), 한국말의 부정의 범위, 한글 173·174: 327-351.
- 양동휘(1983), The extended binding theory of anaphora, 어학연구 19-2.
- 양정석(1996), ‘-와/과’ 문장의 통사구조, 남기심 엮음, 국어문법의 탐구 III: 217-288. 태학사.
- 양정석(1998), 국어 ‘와/과’ 문장의 통사론과 의미론: 어휘주의적 분석과 프롤로그로의 구현, 한국언어문학 40: 73-122. 한국언어학회.
- 양정석(2002가), 시상성과 논항 연결, 태학사.
- 양정석(2002나), 국어의 이차 서술어 구문 연구, 배달말 31: 1-57.
- 양정석(2005), 한국어 통사구조론, 한국문화사.
- 양정석(2007), 보조동사 구문의 구조 기술 문제, 한국어학 35, 한국어학회.
- 양정석(준비중), 무시제 가설 하에서의 시간 해석 방법.
-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77-104.
- 윤평현(1991), 국어의 시간 관계 접속 어미에 대한 연구, 언어 17-1: 163-202.
- 이기갑(1987), 의도 구문의 인칭 제약, 한글 196호: 295-307.
- 이기용(1980), 몬테규 문법에 입각한 한국어 시제 분석, 언어 5-1: 137-181.
- 이상태(1995), 국어 이음월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형설출판사.
- 이은경(1998), 접속어미의 통사, 서태룡 외,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태학사.
-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정민(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
- 임홍빈(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최동주(1994), 국어 접속문에서의 시제 현상, 국어학 24: 45-86.

- 채 완(1976),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 93-113.
- 최재희(1991), 국어의 접속문 구성 연구, 탑출판사.
- 최재희(1997), 국어 종속접속의 통사적 지위, 한글 238: 119-144.
-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 연구, 태학사.
- Chomsky, N.(1986), Barriers. MIT.
- Enc, M.(1987), Anchoring Conditions for tense, Linguistic Inquiry 18: 633-657.
- Gazdar, G. et. al.(1982), Coordination and transformation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13-4.
- Hornstein, N.(1990), As Time Goes By, MIT.
- Jackendoff, R.(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 Jackendoff, R.(1992), Mme. Tussaud meets the binding theor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0: 1-31.
- Jackendoff, R.(2002), The Foundations of Language. Oxford Univ. Press.
- Langacker, R.(1969), On pronominalization and the chain of command, Reibel, D. & S. Schane eds. Modern Studies in English. Prentice-Hall.
- Munn, A.(1993), Topics in the Syntax and Semantics of Coordinate Structur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Partee, B.(1984), Nominal and temporal anaphora, Linguistics and Philosophy 7: 243-286.
- Stabler, E.(1992), The Logical Approach to Syntax. MIT.

### <부록: 국어 연결어미 문장의 프롤로그 구현>

본문에서의 핵계층 이론적 분석은 프롤로그 구현을 위한 통사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명사어 구조를 도입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프롤로그 구현의 실제 예를 보이기로 한다.

구문분석기(parser)는 문법 프로그램을 그 부분으로 포함하는데,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문법 프로그램만을 제시하고, 구문분석기 프로그램은 양정석(1998)에서 이미 제시한 것을 가정한다.<sup>64)</sup> 이 부록은 본문에서의 통사론적 분석이 여러 유형의 연결어미 문장의 프로로그 구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소개하는 일에 주안을 두기로 한다.<sup>65)</sup>

양정석(1998)에서는 ‘NP-와 NP(-와)’ 형식의 명사구 접속 구조와, ‘NP-와’ 형식의 보충어를 가지는 교호성 구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프로로그 구문분석기를 구현한 바 있다. 이 명사구 접속 구조와 함께 명시어 구조의 연결어미 문장을 해석하는 규칙이 (4)이다. 이 다음에 (13)의 ‘-거든’, ‘-더니’ 어휘항목을 위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들 어휘항목의 의미구조에 주어진 내용이 선택제약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므로, 결국 명시어 구조에서 연결어미가 선택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의미구조와의 대응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의 일이 된다.

% (1) XP 규칙: 공범주 DP<sup>66)</sup>  
 $x(2,d,x(2,d)/[],0,ec,_,[xi]) \rightarrow []$ .  
 % (2) XP 규칙: 명시어를 갖지 않는 경우  
 $(x(2,Cat,x(2,Cat)/[X1],Phi,F,_,_)) \rightarrow [x(1,Cat,X1,Phi,F,_,_)] :- nospecifier(Cat).$   
 $nospecifier(c). nospecifier(v). nospecifier(d).$

64) 이 구문분석기는 원가지 구문분석(left-corner parsing)의 전략에 입각하여 구현되었다. 또한, 문법 규칙들에서 ‘원가지(left-corner)’를 찾아 미리 예거(instantiate)하는 link 생성기를 포함하여 실행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양정석(1998)에는 기초적인 프로로그 구문분석의 방법에 대한 해설도 제시하였다.

65) 국어의 주요 통사 규칙들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프로로그 구문분석기 체계는 곧 독립된 연구로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양정석(1998)에서 제시한 구문분석기 프로그램과 다음의 문법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연결어미 문장의 모든 유형을 처리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진다. 특히, XP 수준, XO 수준의 공범주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한 예로, 명시어 구조의 문장인 “철수가 오거든, 노래하거든, 너도 노래하여라”와 같은 문장을 parse(X,Y)의 X에 ‘[chelswu,ka,o,ketun,nolayha,ketun,ne,to,nolayha,ela]’를 대입하여 실행하면 1차적 단계에서도 공범주 논항(이 경우는 둘째 ‘노래하거든’의 공범주 주어)을 가진 나무구조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상태로는 나무그림이 100개 이상 만들어지므로, parse2와 parse3으로 제약을 가하여 소수의 원하는 통사구조를 얻어야 한다.

66) 논항 흔적(t), pro, PRO, O는 모두 ‘dp’의 공범주로서, 이 규칙에 의해 생성된다.

```

nospecifier(p). nospecifier(n). nospecifier(adv).
% (3) XP 규칙: 왼쪽 명시어를 가지는 경우
( x(2,Cat,x(2,Cat)/[Spec,X1],Phi,F,_) ->>
    [x(2,SpecCat,Spec,_,_,_), x(1,Cat,X1,Phi,F,_) ] ) :- left_spec(Cat,SpecCat).
left_spec(i,d). left_spec(c,d). left_spec(v,d).
% (4) XP 규칙: 오른쪽 명시어를 가지는 경우
( x(2,Cat,x(2,Cat)/[X1,RSpec],Phi,F,_) ->>
    [x(1,Cat,X1,Phi,F,_), x(2,RSpecCat,RSpec,G,H,J,_) ] ) :-
    right_spec(Cat, RSpecCat, Phi, G, H, J).
right_spec(p,n,conj,0,0,_). right_spec(p,p,conj,0,0,_). % 'NP-와 NP(-와)' 구성67)
right_spec(c,c,0,0,fe,have_spec). right_spec(c,c,0,0,rstr,have_spec). % 'C'-CP' 형식의
문장
% (5) XP 규칙: 왼쪽 부가어를 가지는 경우
( x(2,Cat,x(2,Cat)/[Adjunct,X2],Phi,F,_) ->>
    [x(2,AdjunctCat,Adjunct,_,_,J,_),x(2,Cat,X2,Phi,F,_) ] ) :-
    left_adjunct(Cat,AdjunctCat,F,J).
left_adjunct(v,adv,ec,_). left_adjunct(i,adv,ec,_).
left_adjunct(v,c,ec,vpadju). left_adjunct(i,c,ec,ipadju).
% (6) XP 규칙: 오른쪽 부가어를 가지는 경우
( x(2,Cat,x(2,Cat)/[X2,Adjunct],Phi,F,_) ->>
    [x(2,Cat,X2,Phi,F,_),x(2,AdjunctCat,Adjunct,_,_,J,_) ] ) :-
    right_adjunct(Cat,AdjunctCat,F,J).
right_adjunct(v,p,ec,_). right_adjunct(v,adv,ec,_).
right_adjunct(v,c,ec,vpadju). right_adjunct(i,c,ec,ipadju).

% (7) X1 규칙: 보충어를 갖지 않는 경우
( x(1,Cat,x(1,Cat)/[X0],Phi,F,_) ->>
    [x(0,Cat,X0,Phi,F,_) ] ) :- nocomplement(Cat).
nocomplement(v). nocomplement(n). nocomplement(adv).
% (8) X1 규칙: 보충어를 가지는 경우
( x(1,Cat,x(1,Cat)/[Complement,X0],Phi,F,_) ->>
    [x(2,CompCat,Complement,H,G,_), x(0,Cat,X0,Phi,F,_) ] ) :-
    complement(Cat,CompCat,Phi,H,F,G).

```

67) 두 규칙 중 왼쪽의 것은 'NP-와 NP' 형식, 오른쪽의 것은 'NP-와'가 오른쪽에 반복되는 귀환적 형식을 위해서 필요하다.

```
% 머리성분의 보충어 선택68)
complement(c,i,0,0,fe,ec).      complement(c,i,0,0,fe,moved).
complement(c,i,0,0,rstr,ec).    complement(i,v,0,0,ec,_).
complement(d,p,0,conj,0,0).     complement(d,n,0,0,0,0).
complement(d,n,0,0,ec,0).69) complement(p,n,conj,0,0,0).

% (9) X1 규칙: 왼쪽 부가어를 가지는 경우
( x(1,Cat,x(1,Cat)/[Adjunct,X1],Phi,F,_) ->>
    [x(2,AdjunctCat,Adjunct,_,J,_),x(1,Cat,X1,Phi,F,_) ] ) :-
    left_adjunct(Cat,AdjunctCat,F,J).
left_adjunct(v,c,ec,vladju). left_adjunct(i,c,ec,iladju).

% (10) X1 규칙: 오른쪽 부가어를 가지는 경우
( x(1,Cat,x(1,Cat)/[X1,Adjunct],Phi,F,_) ->>
    [x(1,Cat,X1,Phi,F,_),x(2,AdjunctCat,Adjunct,_,J,_)] ) :-
    right_adjunct(Cat,AdjunctCat,F,J).
right_adjunct(v,c,ec,vladju). right_adjunct(i,c,ec,iladju).

% (11) X0 규칙 : V-I-C 구문 규칙
x(0,c,x(0,c)/[V0,I0,C0],Phi,rstr,_) ->>
    [x(0,v,V0,_,rstr,_),x(0,i,I0,0,_,_),x(0,c,C0,Phi,fe,_)].
x(0,c,x(0,c)/[V0,I0,C0],Phi,rstr,_) ->>
    [x(0,v,V0,_,moved,_),x(0,i,I0,0,_,_),x(0,c,C0,Phi,fe,_)].

/* 어휘부 */
% (12) X0 규칙 : "N-D-V 재구조화(유형II)"
( x(0,v,x(0,v)/[VerbalNoun,D,V0],Phi,rstr,_) ->>
    [x(0,n,VerbalNoun,_,X,_), x(0,d,D,_,_), x(0,v,V0,Phi,Y,_) ] ) :-
    restructuring_condition(X,Y).
restructuring_condition(verbal,lv).

% (13) X0 규칙: 어휘항목
x(0,c,x(0,c)/[],0,fe,ipadju,X^X) ->> [].
x(0,c,x(0,c)/[-nunta],0,fe,X^[[dec],X]) ->> [nunta].
x(0,c,x(0,c)/[-ela],0,fe,X^[[impe],X]) ->> [ela].
x(0,c,x(0,c)/[-ketun],0,fe,have_spec,Y^X^[[if_then(X,Y)]]->>[ketun]. % 명사어 구조70)
```

68) 이는 1절의 (3)에 정리한 ‘보충어 선택’을 구현한 것이다.

69) 보조사가 공범주인 DP도 주어나 목적어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

$x(0,c,x(0,c)/[-teni],0,fe,have\_spec,\_)\rightarrow>>[teni].$  % 명시어 구조  
 $x(0,c,x(0,c)/[-unikka],0,fe,ipadju,\_X^{[from(X)]})\rightarrow>>[unikka].$  % IP 부가어 구조  
 $x(0,c,x(0,c)/[-ko],0,fe,ipadju,\_)\rightarrow>>[ko].$  % IP 부가어 구조  
 $x(0,c,x(0,c)/[-umyen],0,fe,i1adju,X^{[if(X)]})\rightarrow>>[umyen].$  % I' 부가어 구조  
 $x(0,c,x(0,c)/[-kose],0,fe,vpadju,X^{[after(X)]})\rightarrow>>[kose].$  % VP 부가어 구조  
 $x(0,c,x(0,c)/[-tolok],0,fe,v1adju,X^{[after(X)]})\rightarrow>>[tolok].$  % V' 부가어 구조  
 $x(0,i,x(0,i)/[],0,ec,\_X^X)\rightarrow>>[].$   $x(0,i,x(0,i)/[-ess],0,pe,\_)\rightarrow>>[ess].$   
 $x(0,d,x(0,d)/[],0,ec,\_X^X)\rightarrow>>[].$   $x(0,d,x(0,d)/[-to],0,0,\_X^{[ka\_sem],X})\rightarrow>>[to].$   
 $x(0,d,x(0,d)/[-ka],0,0,\_X^{[ka\_sem],X})\rightarrow>>[ka].$   
 $x(0,d,x(0,d)/[-lul],0,0,\_X^{[lul\_sem],X})\rightarrow>>[lul].$   
 $x(0,p,x(0,p)/[-wa],conj,0,\_X^Y^{[i,nonbounded],and(X,Y)})\rightarrow>>[wa].$   
 $x(0,p,x(0,p)/[-wa],com,0,\_X^X)\rightarrow>>[wa].$   
 $x(0,n,x(0,n)/[-ne],0,0,\_[you])\rightarrow>>[ne].$   
 $x(0,n,x(0,n)/[-chelswu],0,0,\_[chelswu])\rightarrow>>[chelswu].$   
 $x(0,n,x(0,n)/[-kakok],0,0,\_[kakok\_song])\rightarrow>>[kakok].$   
 $x(0,n,x(0,n)/[-yuhayngka],0,0,\_[pop\_song])\rightarrow>>[yuhayngka].$   
 $x(0,n,x(0,n)/[-kyolyul,reci,verbal,\_])\rightarrow>>[kyolyul].$   
 $x(0,n,x(0,n)/[-sicak],0,verbal,\_)\rightarrow>>[sicak].$   
 $x(0,v,x(0,v)/[],0,ec,\_X^X)\rightarrow>>[].$   
 $x(0,v,x(0,v)/[-nolayha],0,moved,\_X^{[sing(X)]})\rightarrow>>[nolayha].$   
 $x(0,v,x(0,v)/[-o],cv,moved,\_X^{[come(X)]})\rightarrow>>[o].$   
 $x(0,v,x(0,v)/[-ha],cv,moved,\_Y^X^{[aff(X,Y)]})\rightarrow>>[ha].$   
 $x(0,v,x(0,v)/[-ha],0,lv,\_)\rightarrow>>[ha].$

구문분석은 위 (1)-(13)의 문법 규칙들을 실행하는 1차적 구절표지 형성(과잉 생성), 제약 조건 부파에 따른 2단계 구절표지 형성, 부가 변형 등의 조작에 따른 3단계 구절표지 형성, 모두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parse(X,Y)$  술어에 의해 실행된다. 다음으로 2단계는  $parse2(X,Y)$  술어에 의해, 3단계는  $parse3(X,Y)$  술어에 의해 실행된다. 2단계와 3단계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제2단계 실행:  $parse(X,Y)$ 에서 얻어지는 나무그림(Y)은 과잉 생성된 것이므로, 여기에 제약을 가하여 소수의 나무그림을 얻는다. 다음은 전체 문장이 CP인 것만으로 제

---

70) 'have\_spec'은 명시어를 취하여 명시어 구조를 형성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ipadju', 'i1adju', 'vpadju', 'v1adju' 등이 해당 연결어미 절이 부가될 구조적 위치('VP 부가어', 'I' 부가어', 'IP 부가어', 'V' 부가어')를 지정해 준다.

약되는 점, 공범주 연산자와 흔적을 가지는 연결어미 절의 경우 그 주어와 상호 성분통어해야 한다고 제약되는 점만을 구현해 본 것이다.

```

parse2(L, Tree) :-
    parse(L, Tree), tree_condition(Tree), subtree_condition(Sub, Tree).
tree_condition(Tree) :- Tree=x(2,c)/_, \+ Tree = x(2,c)/[x(2,d)/[],_].
subtree_condition(Sub, Tree) :- predication_condition(Sub,Tree).
predication_condition(Sub,Tree) :-
    second_pred_ot(Sub,Tree)
    -> argument(Sub2,Tree), mutual_mcommand(Sub,Sub2,Tree).
second_pred_ot(Sub,Tree) :-
    subtree(Sub,Tree), consec_specs(A,B,Sub), empty(A)
    -> consec_specs(A,B,Tree), empty(B).
consec_specs(A,B,Tree) :-
    A \= B, subtree(A,Tree), spec_of_mp(A,XP), comp_of_mp(YP, XP),
    subtree(B,Tree), spec_of_mp(B,YP).
    
```

2) 제3단계 실행: ‘parse2’가 1단계에서 얻어진 나무그림 중 부적격한 것을 걸러내는 일만을 하는 데 비해 ‘parse3’은 자절을 첨가하거나 부분적인 구조를 교체하는 작용을 한다. 여기에서는 비우기 구문의 머리성분 공범주들의 연속을 통사적으로 해석된 구조로 만드는 과정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1단계의 ‘parse’에 의해서는 “철수는 가곡을, 영호는 유행가를 노래하였다.”와 같은 문장이 V와 I와 C가 모두 공범주인 구조로 생성된다. 다음의 절차는 이를 ‘C/[V-I-C]’와 같은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비우기 구문을 일반적 차원에서 통사적, 의미적 원리에 따라 해석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

parse3(L,Tree, TRTree) :-
    parse2(L,Tree), subtree(Sub, Tree),
    gapping_construction_building(Sub,Tree,TRTree1).
gapping_construction_building(Sub,Tree,Tree2) :-
    empty_head_serial(Sub, Tree), gap_con_substitute(Sub, Tree, Tree2).
empty_head_serial(Sub, Tree) :-
    subtree(Sub,Tree), Sub = x(0,_)/[], head_of_mp(Sub,X),
    
```

```

subtree(X,Tree), comp_of_mp(X,Y), head_of_mp(Z,Y), Z = x(0,_) / [].
gap_con_substitute(Sub, Tree, Tree2) :-
    subtree(Sub, Tree), Sub = x(0,c) / [].
->
    Sub2=x(0,c) / [x(0,v) / [], x(0,i) / [], x(0,c) / []], substitute(Sub, Sub2, Tree, Tree2).

```

구문분석기가 하는 일은 종단기호열의 모든 단위들에까지 이르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내는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결어미 문장들을 보충어 구조, 부가어 구조, 명사어 구조 등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어 문장의 통사구조 형성에서 작용하는 제약의 실상을 기술하고, 이 결과를 구문분석기로 기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 <Abstract>

### Syntax of Clauses Bearing Connective Endings in Korean: X-bar Theoretic Analysis and Its Prolog Implementation

Yang, Jeong-Seok(Yonsei University)

X-bar theoretic analysis of clauses bearing connective ending('connective clauses') in Korean is proceeded. Korean language has seven classes of connective clauses, on Chomsky(1986)'s X-bar theoretic point of view. One of them is Complement, five of them are Adjuncts, and the rest one is 'X' constituent' taking a Specifier on its right sid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five main points. First, the overall domain of connective clauses of the Korean language is investigated on the systematic basis, and, as a result, the so-called 'coordinate'/'subordinate' distinction in the connective sentences is shown not to be sustainable on the syntactic ground. Second, three groups of secondary predicate connective clauses are classified and characterized in each part. They are Adjunct of V', Adjunct of VP, and Adjunct of I'. A secondary predicate connective clause has an empty operator(Oi) in the Specifier position and its co-indexed trace(ti) within the



clause. It takes a subject or object as its 'host' in the sense of Rothstein's(1983, 2001) theory of predication. Third, a group of connective clauses is characterized as taking Specifier on the right of the clause in the entire connective sentence. This type of connective clauses imposes a kind of selectional restriction on the Specifier, as a consequence of its structural configuration. Fourth, it is shown,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the distribution and interpretation of temporal morphemes in the connective sentences, that Korean does not have a tense system in the sense of European languages, favoring the thesis formerly proposed by Nam's(1972, 1975) study, contrary to the usual belief of the existing study in the Korean linguistic field. Fifth, the preceding X-bar theoretic points are further advocated by implementing a Prolog parsing system.

Key words : X-bar theory, specifier construction, adjunct construction, secondary predicate, theory of predication, Prolog implementation, parser

이 름: 양정석

근무처: 연세대학교 문리대학 국어국문학과

주 소: [220-710]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

전 화: 033-760-2348

전자우편: yjsyang@yonsei.ac.kr

논문 접수: 2007년 3월 31일

심사 완료: 2007년 5월 4일

게재 확정: 2007년 5월 11일